4부

청계피복노동조합 x 동일방직노동조합 연대

인터뷰 4회차

2022년 8월 1일 월요일 14:00

왼쪽부터 이순자, 전순옥, 정명자, 최연봉

“동일방직의 전경이 굉장히 예뻐서 여기는 어디 대학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야, 옆집 사는 아저씨가 동일방직에 다니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 해놨으니까 동일방직에서 모집하면 거기로 가라, 이런 거예요.”

1.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 그 이후의 삶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이하 청계노조) 대외 활동 과정에서 여타의 민주노동조합들과 주고받은 연대와 역할에 대해 구술을 통해 기록하는 제4차 전태일노동구술기록사업 네 번째 날입니다. 청계노조를 비롯하여 1970년대 민주노조 활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섬유·봉제 산업으로 대표되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해당 직군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공순이라 불리면서 노동시장의 최하층에서 취약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투쟁하며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의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에 굵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한국 최초로 여성 지부장을 배출한 동일방직노동조합 또한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주역이었다고 모두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 동일방직노조 활동을 하신 정명자 동지 그리고 최연봉 동지, 또 청계노조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이순자 동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존재와 또 민주노동조합의 투쟁 방식, 그리고 두 노조 사이의 연대 활동과 민주노조라는 이름으로 함께 투쟁하면서 맺은 인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순옥입니다. 먼저 정명자 동지.

정명자 저는 동일방직에서 해고당했고요. 해고당하고 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나 또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왔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옛날을 다시 되살리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노동자들이 어떤 투쟁을 했는가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네, 고맙습니다. 해고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도 지금까지 노동자로서 아주 투쟁적으로 잘 살아오셨죠. 지금도 살고 있고. 다음은 우리 최연봉 동지.

최연봉 44년 전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할 때마다 아린 가슴이 있고요. 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의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건 많이 사라졌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더 기억을 못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싫지만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도 잘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일방직 해고자 최연봉입니다.

사회자 시작을 아주 잘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계노조에서 활동했던 이순자 동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순자 안녕하세요. 이순자입니다. 저는 조합원으로 시작해서 운영위원, 대의원을 거치고 나중에 부녀부장으로 상근하다 9·9 사건(1977년 9월 9일 청계노조가 당시 이소선 어머니를 구속하고 노동교실을 폐쇄한 국가 폭력에 맞서 펼친 투쟁. _편집자 주)도 겪었어요. 그런데 저는 노동운동과 동떨어진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제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요, 누가 인터뷰를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또 얼마 전에 <미싱타는 여자들> 영화를 기획하면서 저한테도 나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한

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위안부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살았대요. 그러다 취재를 오니까 자기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면 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말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취재진이 그분 아들을 찾아갔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위안부였는데 사실이 알려지면 아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말씀을 못 하셨다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진작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어머니를 이해했을 텐데, 전혀 몰랐었다고. 그렇게 취재를 마치고 위안부 할머니한테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 말씀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다시 필리핀에 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이해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텔레비전에서 보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지금은 나도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앞으로 더 세월이 지나가면 더 가물가물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나를 인터뷰하자고 그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다큐 영화를 찍으면서 인터뷰하자는데 해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남편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다음으로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런 인터뷰 요청이 있었는데 해도 되겠냐면서 사정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말할 게 없어서 못해. 엄마는 말할 게 있는데 왜 못하냐고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래, 엄마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네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못했어, 라고 했더니 엄마! 엄마 삶이 부끄러워? 그래요. 아니, 하나도 안 부끄러워, 엄마는. 그러면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미싱타는 여자들>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하자고 해도 안 했던 내가 마지막에 감독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출연을 했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잘되면 나중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 과거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촬영을 마치고 나중에 영화까지 보니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누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를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겪었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았고 내가 겪었던 내용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남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다가, 그게 아닌데, 이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건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2. 여성 노동자들의 현황

사회자 잘 오셨어요. 우리 이순자 동지께 박수 한번 쳐주면 어떨까요?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정말 훌륭하게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딸들, 아들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 내가 미싱사였다는 걸 절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공순이라는 그런 이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런 아픔을 다 덮고 살았죠. 저도 제가 관계한 '수다공방'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자신의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과거를 숨기고 살다가 나중에 이순자 동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다 드러내니까 삶이 더 자신 있고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 노동자들, 특히 1960, 1970년대 활동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아직도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기념관에서 이런 기록들, 큰 기록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개개인의 작은 기록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관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을 진행하는 모든 분들께 사회자로서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듣고 싶은 내용은 당시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실상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 또 어린 10대 여성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최약자로서 가혹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수행했습니다. 『전태일 평전』을 비롯한 많은 기록들에 이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다 같이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해 자신의 경험들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기억들이 더 흐려지고 없어지기 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 텐데,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하더라도 들으신 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현황, 예컨대 가정 환경, 연령대, 교육 수준은 어땠는지, 또 타지에서 온 분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취직하게 된 동기와 취업 경로, 또 공장에 들어와서 이후의 생활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당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했는지, 예컨대 당시 공순이라는 멸칭으로 많이 불렸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딸로 태어나서 서울이나 도시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취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다수인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폭력들, 동일방직도 그랬고 평화시장도 그랬고. 성희롱이랄까? 성폭행이랄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수준이었는지, 본인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동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잘 해결되었는지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남녀 차별로 인한 고충. 예를 들어서 남녀 임금 격차라든지, 공장에서 일할 때의 위생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시 여성 노동자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이순자 제가 먼저 할게요.

사회자 먼저 하실래요? 우리 이순자 동지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순자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저희 오빠가 아팠어요. 저랑 4살 차이였는데. 오빠가 아프니까 나를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당시 기성회비를 내야 했는데 못 냈어요. 학교에서는 기성회비를 안 내면 중학교 원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일찌감치 포기했죠. 기성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오빠가 18살의 나이로 아파서 죽었어요. 저는 학교에 간 애들을 막연하게 부러워했

어요. 교복을 입고 다니니까. 그런데 동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내년에 학교 보내준다는데 보내줄 것 같지? 안 보내줘. 그럼 너 집에서 살림만 하고 부엌데기 역할만 해. 내 친구가 평화시장에 다니는데 너는 내가 소개해줄 테니까 그냥 평화시장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도 평화시장에 다녔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평화시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의 말을 듣고, 그럼 언니, 나 소개해줘, 해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중부시장이에요.

중부시장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은 다 건어물 가게로 변했지만 예전에는 공장이 쭉 늘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면 돈을 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묵정공원까지 가요. 그런데 묵정공원에 가면 아저씨가 지키고 있어요. 매일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럼 화장실을 못 쓰고 결국 돈을 내고 가는 거죠. 그러다 하루는 언니들이 화장실 갈 때 '나 홀로 다방' 갈 사람? 그래요. 그날도 묵정공원에서 쫓겨나서 화장실을 못 가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언니, 나 홀로 다방으로 가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나홀로 다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땐 또 전기 사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불이 나가면 일을 못 해요. 다리미질이나 미싱을 못 하니까. 그러면 집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해요. '마도메(봉제 작업 후 단추 부착, 실밥 제거 등 마무리 작업을 의미하는 봉제 용어. _편집자 주)'라고 해서 단추도 달고 하는데, 그것까지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서 누워도 있다가, 앉아도 있다가 그러면서. 그러다 불이 들어오면 다시 일을 시켜요. 몇 시간이라도 막차 시간까지 일을 시켜요. 또 저희는 첫째, 셋째 일요일엔 쉬었어요. 당시 월급은 보통 8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일을 잘한다고 1,200원을 준 거예요. 그게 첫 월급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17살에 평화시장으로 갔어요. 전에 동네에서 요꼬(스웨터 만드는 작업. _편집자 주) 짜는 집에 다니다가 거기에선 기술이 너무 발전이 없으니까 평화시장에 시다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통일상가에 있는 현대사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전태일 동지가 분신하는 사건을 접하게 됐어요. 다음은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할게요.

사회자 다음은 또 누가 처음 공장에 왔을 때 이야기를. 우리 명자 씨.

정명자 저는 아버지가 피난민이었어요. 이북 사람이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다 목포에 정착해서 크게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나무로 만든 목선이 다녔는데 아버지는 철선을 만들었어요. 중국 바다까지 진출을 하려고. 그런데 사업이 안 돼서 어협(어업조합. _편집자 주)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아무튼 법원에서 집달리(집달관)가 나와서 집안 살림들을 다 차압하고. 아버지는 빚을 갚아야 하니까 다시 군산으로 배 타러 가시고. 엄마하고 우리만 덩그러니 남아서 먹고살았죠.

그때는 목포가 바닷가였기 때문에 일본으로 해산물을 많이 수출했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개를 까서 어협에 넘기면서 식구들이 먹고살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빚을 다 갚고 오셨어요. 그다음에 집을 팔아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엄마가 매일 그랬어요. 공부만 잘하면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공부하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웃음)

사회자 일찌감치 철이 들었구나.

정명자　　그랬는데 중3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야간 고등학교라도 가라. 그랬는데, 그럴 생각이 안 들었어요. 파산이 되면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원칙대로 사업을 하셨는데 어협 빚을 못 갚는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아, 내가 빨리 커서 돈을 벌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망하게 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가슴을 펴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사회자　　맏딸이에요?

정명자　　아니에요. 둘째 딸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엄마는 계속 빈말처럼 고등학교 가라 그러는데 동생들이 아래 줄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돈을 벌어서 살림에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먼저 합판 공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2~3개월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었어요. 그때 월급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월급을 받고 제가 막 울었어요. 내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회자　　합판 공장에서?

정명자　　네. 내가 일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반장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너무 돈이 적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엄마랑 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빚잔치를 하고 인천으로 오신 거예요. 인천 동일방직 옆 만석동 판자촌에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사셨어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같이 모여 살자고 그래서 인천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동일방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우리 사회가 열심

정명자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다 잘살 수 있는 사회다, 그렇게 머릿속에 인지가 됐는데, 너무 월급이 적고 일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는 철만 들면 다들 공장으로 갔을 때였으니까."

히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다 잘살 수 있는 사회다, 그렇게 머릿속에 인지가 됐는데, 너무 월급이 적고 일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는 철만 들면 다들 공장으로 갔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동일방직에 들어왔는데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어요. 몸무게 보고 키 보고. 그다음은.

사회자 진짜요?

정명자 네. 그 옆에 대성목재도 있고 여러 공장들이 있었는데 동일방직은 8시간 근무인 거예요. 대성목재 같은 경우는 12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동일방직 들어가려면 인물도 좋아야 되고 키도 커야 한다, 그렇게 알았었어요.(웃음) 그래서 이야, 동일방직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일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기계에 맞추려면 키가 1m 58cm가 넘어야 하고 힘든 노동을 견디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방직은 훈련소가 있었어요. 훈련소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현장 교육을 시키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직업 훈련도 받았거든요. 직업 훈련을 한 이유는 일을 잘 시켜먹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동일방직에 들어갔어요. 저는 75년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갈 때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현장에서 말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다 호루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체격이 왜소해서 운반을 안 시키고 청소를 시켰어요. 그때 걸음을 걷는 게 1분에 140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경보 스타일인 거예요. 어쨌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적응이 되었어요. 저는 본래 기독교 신자여서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선배 언니들이 절 찍었어요. 그렇게 산업선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왜 노동자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리고 전태일 동지 이야기 듣고 이러면서 노동조합이 잘돼야 우리나라가 참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바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회자 노동조합이 잘돼야 나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네요. 다음은 우리 최연봉 동지.

최연봉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오빠가 4명이었고 또 언니가 있어서 내가 우리 집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막내니까.

최연봉 오히려 오빠들이나 언니들에게 뭔가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합격했는데, 엄마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더니 떨어져서 오랬더니 이년이.(웃음)

사회자 왜 붙었냐고?

최연봉 못 보내, 못 보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웃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엄마는 내가 붙었는데도 못 보낸다고 그러냐고. 엄마가 속이 상하니까 그러셨겠죠.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데 합격 통지서가 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우리 집에서 나를, 특히 여자를 고등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형편이었어요. 나

도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내가 도시로 가서 돈을 벌어서 학교에 가겠다 했더니.

사회자 고향은 어디였어요?

최연봉 전라북도 김제요. 그런데 우리 오빠들이 나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어 가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살림을 했죠.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히려 오빠들이 더 무서웠어요. 규제도 굉장히 심하고 저녁에 어두워지면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또 오빠들도, 동생이지만 여자들에게는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밥상 차려, 술상 차려 뭐 이런 것들 시키고 그러는 게 난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빨리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엄마를 졸랐죠.

그때 인천에 큰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인천에 큰언니 집에 데려다줬어요. 엄마가 내려가시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장 하나가 언니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 공장에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가 별표 솜이에요. 이불솜 만드는 솜 공장. 그래도 솜 공장에 꽤 오래 다녔어요. 한 2년 가까이 다녔는데 거기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편지를 부치러 가는데 우체국 가는 길에 동일방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공장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별표솜공장과 달리 정문에서 보는 동일방직의 전경이 굉장히 예뻐서 여기는 어디 대학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야, 옆집 사는 아저씨가 동일방직에 다니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 해놨으니까 동일방직에서 모집하면 거기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다 면접을 하니까 가라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냈어요. 그런데 제가 인물이 되잖아요. 키도 되고.(웃음) 그래서 합격을 했지 뭐예요.

사회자 덜커덕 합격을 했어요.(웃음)

최연봉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뚱뚱하지만 그때는 날씬했다우.(웃음) 여튼, 합격을 하고 실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들어갔는데 저는 직포과에 들어갔어요. 천을 짜는.

사회자 그때가 몇 년도예요?

최연봉 75년 3월이에요.

사회자 동기네.

정명자 나보다 언니가 한 달 정도 먼저 들어갔어요. 내가 75년 도 4월.

최연봉 하여튼 직포과에 갔는데. 아, 이거는……. 몇백 대의 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천을 짜는 기계가. 그 기계의 소음이 너무너무 심해요.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장이나 조장 같은 경우에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사람을 부르고 하던 때고. 또 얼마나 더운지, 겨울에도 얇은 반팔이랑 치마를 입고 이러는데도 땀에 다 젖어 있고.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의 더위예요. 솜먼지는 또 날아다니지. 솜을 안 닦으면 눈썹 같은 데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여름에는 소금하고 물을 갖다 놔요. 탈수증에 걸리면 안 되니까 소금하고 물 먹고 일을 하라고. 하여튼 여름에는 그렇게 더운 데서 일을 했고.

사회자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죠.

최연봉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화장실에 갈 수 없어요. 내가 기계를 24대, 36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1분에 140보를 걸어 다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솜먼지 같은 게 떨어져서 실이 엉키거나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다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다시피 다녀야지.

사회자 1분에 140보.

최연봉 예, 뛰다시피 다녀야 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누군가 와서 봐줘야 돼. 조장에게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 전달을 해놓으면 저쪽에서 일이 끝나야 와.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옆의 친구는 조장을 기다리다가 그냥 틀 사이에 앉아서 오줌을 쌌어요.

사회자 그 정도로.

최연봉 하여튼 자유도 없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꼭 누가 와서 틀을 봐줘야 갈 수 있고. 아니면 혼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작업하기 1시간 전에 먼저 들어가요. 1시간 먼저 들어가서 내가 맡은 기계에 쌓여 있는 솜먼지를 털어내야 돼요. 그렇게 기계 청소를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고. 만약 실이 엉켜서 끊어지게 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걸 다 이어서 마무리를 해놓고 나와야 돼요.

사회자 그런 거는 작업 시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최연봉 안 되죠. 잔업 수당 안 줬어요. 1시간 먼저 들어가서 정리해야 하고, 또 마무리할 때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 마무리해놔야 해요. 그러니 식사 시간도 없었어요. 다른 부서를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30분 정도 식사 시간이 있다는데 우리 부서는 조장이 교대를 해줘야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었어요. 조장이 밥 먹으러 가라, 그러면 뛰어가서 5분 내에 먹고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가면 줄을 길게 늘어서는 거예요. 빨리 밥 먹고 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럴 때는 밥을 다 못 먹고 와요.

사회자 회사 식당에서?

최연봉 네. 그렇지 않으면 눈치 주고 혼내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3교대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에도 일 나가야 되니, 야간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사회자 3교대니까?

최연봉 예, 이걸 어떻게 하나? 계속 애만 태우고 있지. 보전반이라고 낮에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들 중에 주로 기계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보전반이었고, 여자들은 기계 닦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전반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야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야간 학교에 갈 수 있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야간이 걸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다니던 친구가 야, 내 친구가 어디 교회에 가는데 꽂꽂이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한문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준대. 너 거기 같이 안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안 가? 당연히 가야지, 공부

최연봉

"남자들이 많고 회사 쪽 사람들이 많아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식사 시간 30분도 되찾고, 그룹도 하나 만들어서 1시간 먼저 들어가는 거 안 하고 제시간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때 받은 고통은 엄청 심했죠."

가르쳐준다는데.(웃음) 얼른 쫓아갔는데 산업선교회였던 거예요.

사회자 영등포? 인천에 있는?

최연봉 인천 산업선교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갔는데 최영희 선생님이 그때 계셨고 조화순 목사님, 다른 남자 선생님도 계셨고. 거기에서 전태일 이야기랑 노동조합이 뭔지도 듣고. 근로기준법에 너희들의 권리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했어요. 나는 노동조합을 알기 전에 산업선교회를 먼저 알아서 내가 나중에 노동조합으로 찾아갔어요.

정명자 왜냐하면 직포과는 조직이 좀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연봉 언니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에 들어오면서 바로 찍히고. 직포과는 남자들이 많아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 소극적으로 했었고. 우리 같은 방적과를 보면, 노동조합 집행부들이 거의 다 방적과 출신들이에요.

최연봉 남자들이 많고 회사 쪽 사람들이 많아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식사 시간 30분도 되찾고, 그룹도 하나 만들어서 1시간 먼저 들어가는 거 안 하고 제시간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때 받은 고통은 엄청 심했죠. 매일 가서 혼나고 시말서 쓰고. 그러면서 노동조합 대의원도 됐고. 나중에 해고당할 때는 상집 간부를 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회자 내가 당하는 부당함과 그에 대한 내 권리를 찾으려다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최연봉 네.

3.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사회자 어디나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당시 노동 현장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계, 짐승으로 부리는 최악의 공장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당시 섬유·봉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동일방직은 원단을 짜는 곳이고 평화시장은 그걸로 옷을 만드는 곳이고.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했네요.

어쨌든 동일방직도 그렇고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등 청계노조의 조합원들도 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봉건사회였기 때문에 남존여비와 같은 성차별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었죠. 이는 노동운동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 동일방직의 경우 노동조합 구성원의 다수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로 바꾸기 전에는 남성 지부장과 남성 중심의 지도부가 꾸려져 있었고. 청계노조도 2만7,000명 노동자 중에 85~87% 정도로 다수가 여성이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노동조합이 없던 곳에서 전태일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이 꾸려지다 보니 전태일 친구들을 중심으로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이 꾸려졌습니다.

여튼,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동일방직은 남성 중심의 어용노조를 깨고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여성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연봉, 정명자 두 분께서 구술 기록을 많이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최연봉 동지가 해준 얘기들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함께했으면 합니다.

이순자 동지는 평화시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전태일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그럼 이순자 동지께서는 노동조합이 설립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나요?

이순자 아니. 지금 동일방직 얘기를 들으니까 키도 기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하니 저희랑 비교할 때 우리보다 높은 연령대들이 입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까지 다니고.

사회자 최소한 중학교는 다 졸업하고.

이순자 근데, 우리 경우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나온 사람이 거의 다예요. 진짜 거의 다수가 초등학교 나왔는데. 어린 나이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일 시키면 하고, 월급 주면 하고. 저는 14살이던 1967년 가을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1,200원 받았는데.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적게 받았어요. 당시 월급들을 그렇게 적게 받으니까 월급을 더 받아야 한다, 노는 날이 더 있어야 한다고 우리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는 대로 받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어서 근로 조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도 못했어요.

또 그때는 교복을 입는 시대인데, 우리는 공장을 다니면서 교복을 안 입으니까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싱타는 여자들>에서 임미경도 얘기했지만, 차비를 내도 우리는 일반 요금을 받는데 대학생들은 이렇게 뚱뚱해도 학생 요금을 내요. 우리는 키도 작고 몸매도 가냘픈데도 일반 요금을 내는 거예요.

정명자 깎아줘야지.

이순자 아니요. 깎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키가 너무 작았고, 도시락 가방으로 국민학교 때 메던 책가방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국민학생이라고 생각됐던지, 국민학교 요금을 냈어요.
근로 조건 개선? 그런 거는 우리에게 전혀 없었어요. 다락방은 기본이고 환풍기도 없었어요. 그때 친칠라 코트를 작업했어요. 겨울에 친칠라 코트를 자르고 하면 털이 쫙 잘라지면서 머리카락을 자른 것 같이 돼요. 밥을 먹을 때 그게 날아다니면서 도시락에 딱 내려앉아요. 그걸 떼어내려고 하면 옷에서 더 많은 친칠라 털이 떨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건져내지 않고 먹는 게 털을 덜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어진 삶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반항하지 않고 쭉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17살에 통일상가에서 일을 하는데 바깥이 웅성웅성해요. 점심시간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야, 누가 몸에 불을 질렀대, 그래요. 그때 당시에 평화시장에 노동자들이 모이던 인간시장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육교가 있는데 그때는 육교가 없었어요. 여튼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바깥을 내다보고 그랬는데 뭔 일인지는 몰랐어요. 신문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당시에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 그때 사장님이 와서 바깥에 왜 그래요? 물었더니, 바깥에 깡패가 몸에 불을 질렀으니까 너네들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장님 말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아, 깡패가 그랬나 보다, 그러고 말았죠. 그러다 나중에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 받으려고 골목 같은 어두운 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기도 했었어요.
또 당시 제가 미싱을 탔어요. 17살 가을에. 미싱을 타면 여름에는 블라우스를 만들고 겨울에는 잠바를 만들어요. 잠바를 만들면 미싱사가 미싱 보조, 시다 월급을 줘요. 잠바 공임에 다 포함돼 있어요. 여름에는 시다 월급을 미싱사가 주는 게 아니라 사장이 줘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미싱 보조를 하면 첫해는 서투르니까 그냥 일을 하고. 다음은 이제 기술을 배웠으니 오야 미싱사(보조 미싱사와 시다를 거느리는 고참 미싱사. _편집자 주) 돈을 벌게 해줘야 해서 오야 미싱사랑 같이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독립을 했어요. 재단사가 다른 데 공장에 오야 미싱사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오야 미싱사로 간 게 평화시장이에요.

사회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순자 예, 왜냐하면 14살부터 나왔으니까. 17살 때 미싱 타고 19살에 오야 미싱사가 돼서 평화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평화시장은 지금 가서 보면 가운데 쭉 사람들 다니는 데 있죠. 거기가 복도예요. 그리고 양옆으로 다 공장이에요. 그러니 공장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면 거기다 다락을 내요. 거의 100% 다. 사람 들어가는 데만 네모나게 구멍이 있어서 거기로 올라가요. 좀 더 큰 공장은 3분의 2정도가 다락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락에 재단판이 있고 밑에서 미싱을 하고 그러거든요. 마도메도 다락에 있고.
그런 환경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와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라고 했어요. 가입을 하면 이런 게 좋다고, 등산도 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로 조건 개선도 된다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는데 막연하게나마 노동조합이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입을 했지만 당시에 노조 활동은 안 했어요. 조합비도 안 내고. 나중에 20살 때 동화상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거기에서 이숙희를 만났어요. 이숙희가 저한테 평화시장 옥상에 가면 노래도 가르쳐준대, 건전노래 부르기, 너도 갈래? 그러더라고요.

사회자 노동교실.

이순자 그때는 노동교실이 없었어요.

사회자 있기 전이구나.

이순자 없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갔어요. 평화시장 옥상이 진짜 넓어요. 거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노조 사무실은 조그마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가 전부 가면 사람들이 여러 무리로 있었어요. 아카시아 산하에 크로바클럽, 무슨 클럽, 이렇게 클럽을 지어서 소그룹들을 운영한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면 옥상에 소그룹들이 다 모였어요. 옥상이 넓으니까 군데군데 바닥에 모여 앉아서 건전가요도 부르고. 나는 이승철 씨가 지도위원으로 있는 크로바클럽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일요일 쉬는 날에 사람들을 만나서 4·19탑도 가고, 포도도 먹으러 가고, 딸기밭도 가고 했어요.

어떤 일요일에는 하루를 정해서 사무실에 올라가서 한자 공부를 가르쳐줘요. 생활 한자, 영수증 쓰는 법, 이런 걸 가르쳐주고. 당시 은행은 다 한자를 썼어요. 우리는 일(一), 이(二), 삼(三) 그냥 이렇게 배웠지. 은행에서 쓰는 일(壹), 이(貳), 삼(參)은 안 배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자를 배웠어요. 기본은 그걸로 배웠는데, 은행에서 쓰는 그런 한자는 안 배운 거예요. 노조 사무실에서 한자를 배워서 친구들 데리고 은행에 가서 통장도 만들게 해줬어요. 그런데 친구는 통장에 돈을 넣지만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자를 아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통장에 돈을 찾아주곤 했어요. 공순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고, 학생들 교복 입은 거 보면 위축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교육 장소가 많이 없었어요. 교육 장소가 없으면 가톨릭 어딘가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 을지로6가에 위치한 모임 장소 '이향의 집'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향의집에서 모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향의 집이 어디인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가보면 약속 시간 딱딱 안 지키고 되는 대로 오니까 찾아 헤매다 끝나요. 우리는 겨우 그 장소만 알고.

사회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순자 예, 그렇게 처음에는 교양 교육 같은 걸 배우면서 노조 활동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등산도 가고.

사회자 그때가 청계노조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이순자 그리고 추도식 때 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도 전태일 동지가 어떻다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머니도 항상 거기 노조 사무실에 계셔서 우리랑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사회자 네. 다음으로. 정명자, 최연봉 두 분은 1975년에 동일방직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75년에 이미 여성 지부장으로 바뀌어 있었죠. 코미디언 남보원 씨 부인이던 주길자 씨가 초대 위원장이었죠.

최연봉 어떻게 보면 이미 여성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노동조합 활동이 민주적으로 되면서 성과도 내고 있었던 시기죠.

사회자 75년이면, 이미 72년에 주길자 씨로, 여성 지부장으로 바뀌고 활동도 하면서 외부에 여러모로 많이 알려져 있을 때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들어와 보니 여성 지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바뀌지 않고 그렇게 열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노조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1시간 일

이순자

"친구는 통장에 돈을 넣지만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자를 아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통장에 돈을 찾아주곤 했어요. 공순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고, 학생들 교복 입은 거 보면 위축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찍 들어오고 1시간 늦게 가는 거라든지, 점심시간 쓰는 것,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는 것 들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권리가 주어졌나요?

최연봉 우리가 1시간 늦게 나온 거는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공장 새마을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공장 새마을운동. 우리는 실이 수천 가닥이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 그걸 빨리 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명자 연습을 해야지.

최연봉 그런데 이걸 끝나고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 잇기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빨리 능숙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회자 정명자 동지도 그렇고 최연봉 동지도 75년도에 들어가서 이미 노동조합이 있었고. 그런데 최연봉 동지는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찾아갔고. 그럼 정명자 동지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정명자 저희는 부서가 좀 달라요. 저희는 저희 조장, 반장들이 다 노동조합 상집 간부들이었고. 들어가면 일단 산업선교회나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쪽으로 손이 자연스럽게 닿았고.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자마자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조장이고 반장이고 작업장에서 다 뛰어다녀요. 들고 막 계속 뛰고. 저는 청소를 했는데.

어쨌든 노동조합을 알고 저도 산업선교회에 와서 알게 됐는데, 노동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운동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산업선교회에 열심히 나가다 한번은 지하실에 내려가봤더니 동아투위(동아자유

언론수호투쟁위원회) 지라시가 있는 거예요. A4 용지에.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아투위 해직 기자들이 신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였어요. 그때 느낌이 아, 노동운동은 노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자들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된 부분도 정치랑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전태일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제 정신에 확산되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남성인 문순태가 지부장으로 있다가 주길자 언니가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생리휴가라든가 보너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회사가 얼떨결에 다 들어준 거예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일제하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소속으로 우리 동일방직이 굉장히 진보적인 노동조합을 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후 전평이 탄압을 받으면서 한국노총이 만들어졌죠.

사회자 대한노총이 만들어지고.

정명자 대한노총이 만들어지면서 동일방직도 자연스럽게 대한노총 노동조합이 되고.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지부장 문순태 씨인데. 그러니까 당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노동조합은 그냥 하나의 총무과처럼, 그러니까 회사한테 오더 나오는 걸 이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노조 본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행하는 정도.

사회자 오더 받아서 하는 그런.

정명자 그렇게 인지가 됐었는데, 이제 여자들이 야, 여기에 남자들보다 우리들이 더 많은데, 우리는 왜 못 하냐? 그래서. 그때 1965년, 산업선교회에 조화순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언니들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언니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하자, 하자 해서 72년에 주길자 언니가 지부장이 됐고. 한 1년 정도는 잘 협상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역량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경유착으로 기업주들이 정부를 등에 업고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기업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들불처럼 번져 여기저기에 노동조합들이 생기면 노동자들이 똑똑해져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0년대 동일방직 노동조합이 타깃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외부 세력인 산업선교회가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번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일방직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조직 분규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계속해서 노동조합 조직을 장악하려고 계속해서 반대적 행위를 하고.

사회자 다시 남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정명자 네, 그렇게 하면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들어갔어요.

최연봉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은 여성 집행부가 중심이 된 민주노조로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부터는 계속 노조 사수 투쟁이야.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맨날 싸움을 했어요.

사회자 계속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최연봉 네, 반대파들이죠. 회사에서 계속 남자 조합원들을 모아서 자꾸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니까 이걸 지키기 위

해서 하다 보니까 나체 시위도 하게 되고.

사회자 나체 시위 할 때쯤에는 지부장이 바뀌었지요?

최연봉 나체 시위 할 때 그랬죠. 이영숙 지부장.

사회자 이총각 지부장으로 바뀌었을 때.

최연봉 아니, 이영숙 지부장, 이총각 지부장은 총무부장이었죠.

사회자 당시 노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이 계속해서 여성 중심의 민주노조를 바꾸려고 할 때, 왜 꼭 여성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나요?

최연봉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우리 부서에 석정남이랑 같이 그룹도 만들고 출근 투쟁도 하고. 월차, 생리휴가 이런 거 말만 있었지 그걸 지키지 않았고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 권리들을 하나하나 찾기 위해서 투쟁했고 그게 가능했던 건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었죠.

사회자 여성 지도부가 있어야 여성에게 필요한 생리휴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따낼 수 있는 거죠.

최연봉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힘이 돼줬기 때문에 안에서 싸움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이 백이잖아요. 이걸 등에 업고 활동을 했던 거지 개인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거죠.

사회자 그런 사수 투쟁을 계속하면서 동일방직은 점점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여러 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도 당하고. 그런데 새 지부장으로 언제 이총각 지부장이 되었나요? 77년도쯤? 그런데 76년도, 77년도 그때가 한참 또 투쟁이 굉장히 강렬했을 때죠.

최연봉 그때는 반대파들이 자기네들끼리 중심이 돼서 대의원대회를 하고, 우리 대의원대회는 참석 못 하게 대의원들을 빼돌리기도 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식으로 방해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해서 고두영이라는 사람을 지부장으로 지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이영숙 지부장을 연행하고. 그렇게 회사는 계속 방해를 하고 경찰은 노조 집행부 간부들을 연행하니까 조합원들이 실제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4. 노동조합 사수 투쟁

사회자 그러면서 동일방직 조합원들이 해고도 많이 당하고, 해고에 대한 연대투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다음 우리가 진행하는 이야기는 사실 생각하면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슬픈 얘기도 많고.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서 해야 됩니다.

근현대를 거치면서 노동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결과를 떠나서 감히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있었죠. 자본권력과 어용노조가 결탁을 하고, 또 자본과 정부가 결탁을 하고. 그렇게 민주노조의 여성 지도부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공작이 상당히 컸고요. 그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나체 시위가 있었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지들이 그때 앞장섰는데. 그 이후에도 더 많은 탄압과

해고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어느 방직 공장에도 취직을 못 했죠. 인천만이 아니라 서울, 전국 어디 방직 공장에도 취직을 못 하고. 사실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풍조에서 온갖 비난들을 몸으로 다 받으면서 투쟁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준 것이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투쟁이었기에 그때 동일방직의 투쟁에 함께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격렬히 투쟁을 했고 또 목숨을 내놓고 투쟁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나체 시위, 20대 여성들이 나체 시위를 한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였죠. 그리고 또 인분 투척, 똥물 사건이라고도 하죠. 동일방직 하면 떠오르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기독교회관에서 동일방직 사건이 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구류를 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죠. 그때 청계노조에서도 상당히 많이 연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또 장충체육관에서 시위를 한 사건이 있었고, 부활절 기도회 사건도 있었고요. 명동성당 단식 농성 등 이런 대외 투쟁들을 20대 여성들이 몸을 던져서 했죠. 그래서 다른 민주노조들의 연대도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 지식인, 정치인들까지 연대 투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계노조도 동일방직하고 상당히 많은 연대투쟁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잡혀가기도 하고. 기독교회관에서 똥물 사건 연극하면서 저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어머니랑 경찰서에 끌려가 29일 살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투쟁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어떤 것들을 쟁취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연봉 처음 노동조합을 할 때는 임금이나 휴가, 그다음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근로 조건들을 개선해나가는 데 내가 그냥 노동조합에 함께 열심히 참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행부들은 연행되고 회사에서는 계속 탄압이 들어오고 섬유노조에서도 계속 우리들 편이 아니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섬유노조 조직 깡패들이 동일방직에 투입이 됐잖아요. 조직 깡패들이 투입이 되면서 우리가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노동조합은 이미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근처에 가면 욕하고. 가까이 가면 때리고. 전 많이 맞았어요. 우종환이한테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우리가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플래카드에 빨갱이 물러가라, 쓰여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빨갱이로 취급을 받았던 거잖아요. 노동조합은 이미 조직 깡패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어서 거기 갈 수도 없었고. 집행부 간부들은 이미 징계 처리 돼서 회사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조직 깡패들이 회사를 점령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산업선교회 이런 데를 계속 가지도 못하게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보전반에 있는 남자가 집까지 따라와요. 내가 어디로 가나 지켜보기 위해서. 그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동절 때 장충체육관에 가서 우리 사건을 알리자고 했어요. 사실 그때는 라디오나 TV 이런 거는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고, 신문 보는 것도 어렵고, 우리 사건들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 사건을 알리자, 이래서 3월 10일 노동절 행사 전날 밤에 간부들이랑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노량진 JOC 본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총각 지부장이 모두 눈을 감고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 노동조합을 하는 데 탄압을 받고 반장한테 각서를 쓰고 혼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감

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밤을 세우고 아침에 장충체육관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장충체육관에 들어갔는데 너무 순식간에 자리가 다 배분이 된 거예요.

정명자　　사업장별로.

최연봉　　그런데 우리 동일방직은 어딘지도 몰라. 보니까 옆이 청계 사람들 자리야. 그래서 그쪽에 가까이 가가지고 앉은 거야.(웃음)

사회자　　동일방직은 자리도 안 만들어놨네요.

최연봉　　청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앉아 있다가 대회가 시작되고 구호를 외치는데 진짜 너무 순식간에 들려 나와가지고.

사회자　　들려 나가버렸어요?

최연봉　　들려 나왔어요. 금방. 너무 허무한 거야.

사회자　　소리 한번 지르고.

최연봉　　똥은 먹고 살 수 없다, 소리 한번 지르고 다 들려서 잡혀 나온 거잖아. 잡힌 다음에 경찰 버스에 타고 있는데, 이거 뭐지? 너무 허무한 거야. 그렇게 종로서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풀려나오면서 명동성당으로 갔던 거죠.

사회자　　그래서 거기서 단식 투쟁을 하게 됐구나. 그러기 전에 나체 시위가 있었죠? 회사 안에서.

78. 3. 25 민주통일당보

【2】 Democratic U

御用労組、低賃金 규탄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3·10節 기념식에서 근로자들 봉기

지난 3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3·10節 労総 記念式에서 一部 근로자들은 어용노조 간부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프랑카ー드를 들고 소요를 일으켰다. 이들 근로자들은 鄭東虎 위원장의 기념식 연설 도중 東一방직의 數十名의 여자 근로자가 외치는 「御用労組간부 퇴진하라」「더 이상 잠자코 일할 수 없다. 우리는 동물이나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다가 제지 경찰과 충돌하였다. 동일방직 노조원이 주동이 된 동소요로 30여 여공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었다. 이어서 동일방직의 50여 여공들이 명동성당에서 노동절 기념식 미사에 참여하고 나서 김수환 추기경의 면담을 요청, 기독교 산업선교회나 J.O.C는 공산당이 아니라는 답변을 요구 동성당 사제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계 근로자들은 시내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이날 오후 6시에700여 근로자가 모인 가운데 별도 기념집회를 갖고 노동자의 低賃金,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노총의 지도노선을 맹열히 비판하였다. 集會에 이어 동일방직 여공들의 선두로 시가에 진출 노동가를 부르고 행진하였다.

또 이들 중60여 동일방직 여공들은 조 화순목사(도시 산업 선교회)를 필두로 인천산업선교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申河澈 労農局長 조사보고)

그래도 부르는 자유의 노래

10日, 경찰차로 연행되면서 철창에 매달려 「시민권 운동의 노래」를 부르는 한국의 섬유공장 종업원, 약30명의 여자 근로자들은 서울에서 이날 개최된 노동기념식전에서 반정부 데모를 한탓으로 경찰에서 연행되었다. (外信AP)

동일방직 사태수습 촉구

勤勞者 위한 祈禱會 갖고

동일방직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3월27일 기독교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어 동일방직사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성의있는수습태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동 기도회에서는 이해동 목사의 설교와 고은 (시인)의 격시낭송후 동일방직근로자가 그동안의 사태가조금도 개선된 적이 없다는 경위보고가 있었다。

이어 기도회에 참석한근로자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농성에 들어가 당일 밤10시40분경 해산했다。

78. 4. 1

크리스챤신보

886298

위 : 〈민주통일당보〉 1978.3.25. 동일방직 어용노조, 저임금 규탄 농성 관련 기사

아래 : 〈크리스챤신문〉 1978.4.1. 동일방직 사태 관련 기사

최연봉 그렇죠.

사회자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최연봉 아니 78년도 이야기고 77년도 76년도는 이제 현장에서.

사회자 나체 시위가 있었고 똥물 사건이 있었고.

정명자 사실은 나체 시위하고 똥물 사건 전에 해부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회자 해부식?

정명자 네, 노조 해부식이 있었어요. 그건 노동조합 내부에서 도대체 동일방직 노동조합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등어 배를 갈라서 창자를 보듯이 다 끄집어내보자 그런 거예요. 당시 동일방직 노조에 대한 반조직 행위가 너무 심하고 빨갱이라고 몰아치는 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지식인들이 동일방직과 연대해서 해부식을 명동성당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해부식을 준비할 때 저는 평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저를 원풍 노동조합으로 심부름을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 그 명분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명분? 하여튼 그 내용을 외우면서 원풍에 갔는데 놀란 거예요. 우리는 허구한 날 지부장이 끌려가고 그러는데 원풍모방은 사무실을 소유자 앞에다 크게 해놓고, 또 박순희 언니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방용석 지부장을 만나서 명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못 가겠다 했더니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연대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해부식을 하면서 동일방직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시정하겠다, 그러려고 했는데 노동청의 노동국장이 합의를 보내와서 그냥 노동조합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면서 무마가 된 거예요.

그럼 노동조합 활동을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반조직 행위는 계속해서 안에서 시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9개월을 근무했는데 한 번도 실 짜는 기계 앞에 서지를 못 했어요. 부서 이동을 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랬는데, 저는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서 이동 당하면 거기 가서 또 클럽을 만들어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단련이 되고, 그다음 외부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파괴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나체 시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이제 아무래도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면 일제하 노동운동사가 뭐가 있는지 책도 보고. 그러다 평양의 방직공장 여성들이 아사 운동을 했더라, 찾아보니 마더 존스도 있더라, 우리 한국의 마더 존스는 이소선 엄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인식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학습되고 있는데. 나체 시위가 생기게 된 거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니고. 대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지부장이랑 총무를 불법으로 연행한 거예요. 공금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하겠다고. 그럼 우리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거는 단체 행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단체 행동 들어가는 거고. 그때 무슨 노래가 있었더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고 그다음 노총가 부르고 그 정도 노래를 했는데. 그때 밥, 물도 끊고. 밖에서 아이를 업은 엄마들이 우유 같은 거 넣어주면 경비들이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식이 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금식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나체 시위는 뭐라고 그럴까요? 파란 옷 입고 착착 발맞추는 전

투경찰대 생각이 나면 무서워요. 지금도 그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군사 훈련 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우리들한테 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그냥 잡혀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논의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때 내 생각에는 김광자 부지부장이 뒤에서 먼저 옷을 딱 벗었어요.

최연봉 아니, 아니야. 지부장하고 총무가 연행되고, 자기네들끼리 대의원대회를 하면서 기숙사 문을 걸어 잠근 거야. 그럼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로 모이게 되고 부지부장인 김광자 언니가 지부장 대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지부장도 잡혀갈까 봐.

정명자 보호했지.

최연봉 그때 물도 못 먹었잖아. 단수시키고 이래서. 나는 땡볕에 누워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수건으로 내 얼굴을 가려주고 있었어.

사회자 정문 그 안까지 쭉 나와서 다 있었잖아.

최연봉 잔디밭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누워 있었어.

이순자 거기들 다 누워 있었던.

사회자 우리도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이순자 우리도 어머니랑 갔거든요. 어머니, 나, 이숙희. 그다음 몇 사람이 더 갔는데 기억이 안 나고. 어머니가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쟤네들 얼마나 덥겠냐? 힘들고 덥겠냐?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사서 거기에 던져 줬어요. 시원하라고. 얼음을 던져 주고 했거든요.

사회자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한 거예요.

최연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 일어나, 막 이래.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경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정명자 언니는 그런 경험 했지. 나는 어떻게 했냐면.

사회자 경찰들이 못 잡아가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은 거죠?

정명자 그러니까 어땠냐면 차 봐, 차 봐 하면서 드러누웠는데 광자 언니가 뒤에서, 김광자 부지부장이 우리 부서였거든요. 정방 3반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냥 옷을 쫙 벗더라고요, 뒤에서.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서 옷을 벗은 거죠. 저희들은 그때 그런 각오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속옷을 하나 벗긴 벗었지만.(웃음)

사회자 다 벗었어. 그때.(웃음)

정명자 한참 하다 보니까 주변이 조용한 거야. 눈을 감았어요.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 옷을 못 벗겠더라고. 아예 눈을 감고 그냥 노총가를 불렀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다 뒤로, 뒤로, 하더니 혼자 있더라고요. 다들 달랑 들려가고. 그리고 청자 언니가 차 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다 잡혀갔지. 그때 광자 언니도 잡혀갔나? 다 잡혀갔을 거야.

최연봉 그랬지. 다 잡혀갔지.

정명자 다 잡혀갔는데, 저희들은 우리 식구들이 해산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희를 앉혀놓고 너희들이 긴급조치를 위반했느니,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했느니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바깥에서 노총가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동지들이 해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동부경찰서까지 걸어서 시위를 한 거예요.정말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걔들 잡혀갔어, 우리들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기들도 해산하지 않고 잡혀가려고 온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초상을 치를 때까지 싸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했던 그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도 같이 했으니까 나도 잡아가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풀려났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런 소소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련이 될 수 있었죠.

사회자 그 투쟁은 일단 승리한 거죠?

정명자 그렇죠. 그런데 다시 현장으로 들어왔는데 계속 끊임없이 반조직 행위를 하면서 계속 탄압을 하고 결국 똥물 사건까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한 거죠. 사람들한테 똥물을 끼얹고. 그렇게까지 노동조합을.

사회자 똥물은 왜 끼얹었어요? 그때 무슨 대의원대회 같은 거 하려고 할 때였죠?

최연봉 지부장 선거. 이영숙 지부장이 그만두고 잔여 임기를 이총각 언니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지부장을 선출하는 때인데 해봤자 자기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선거 자체를 무산시킨 거야. 선거를 무산시키려고 새벽에 일 끝나서 퇴근하고 6시에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똥물을 가져다 뿌리고. 그때 제가 사무실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앉아 있었는데, 난 처음에 똥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컵이고 책상이고 다 가져다 뿌리는데, 저게 뭘까? 똥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지. 다 뿌리고 났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똥이라는 걸 냄새로 알게 되잖아요. 내 옷에도 튀고 그랬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울음도 웃음도 안 나,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

정명자 기가 막혔던 거죠.

5. 청계노조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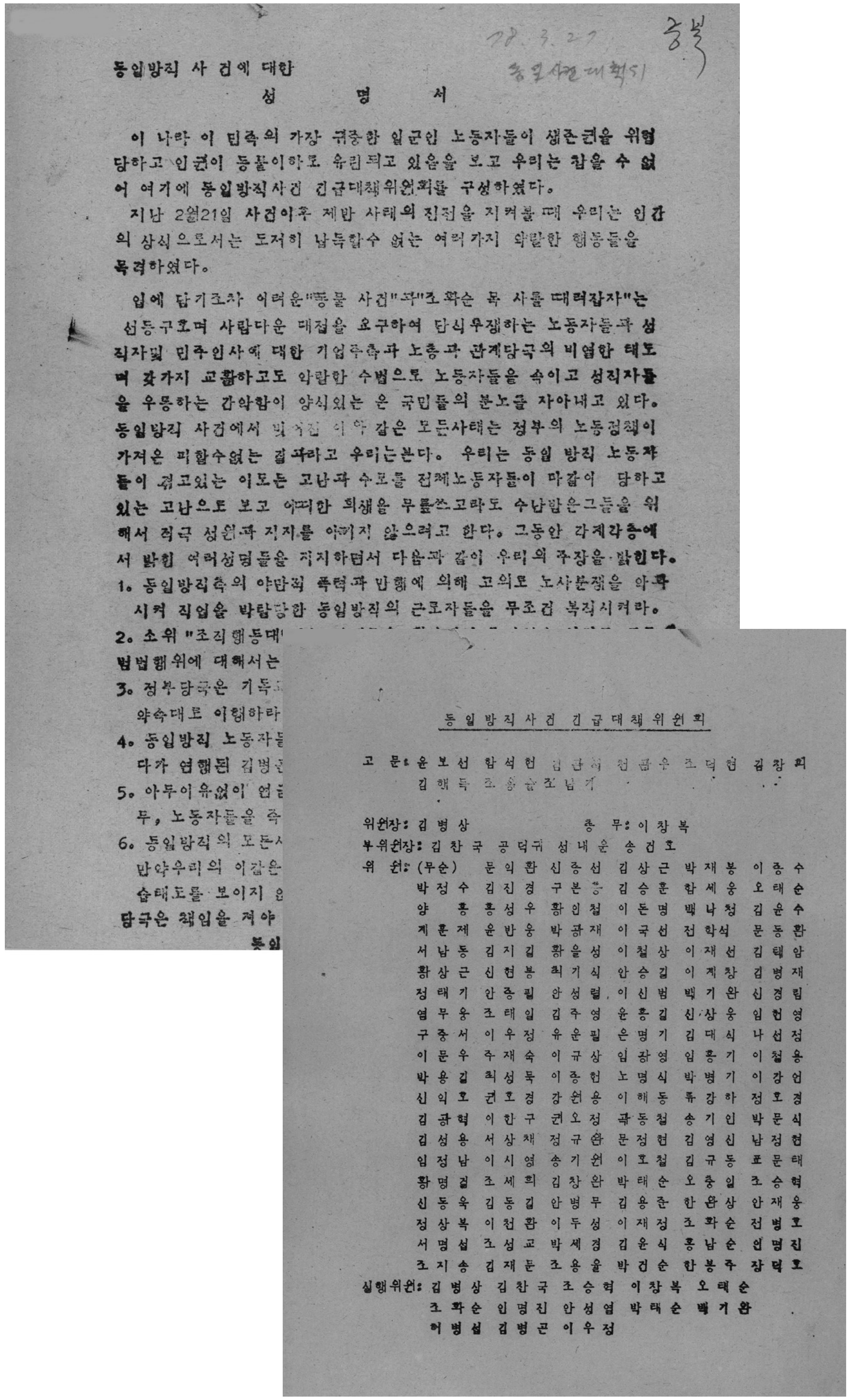
사회자 똥물 사건을 비롯해서 동일방직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어요.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지역기구(ARO-ICFTU)라고 있거든요. 벨기에엔가 있었어. 섬유노조 본부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냈어요, 글로. 어떻게 해서 보냈는데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전부 이탈리아에 모였어.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지역기구(ARO-ICFTU)에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김영태가 왔더라고. 와서 이게 똥물이 아니라 잉크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웃음)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똥물이 아니라 잉크다, 그리고 동일방직 유니폼은 똥색이다. 그래서 똥을 뿌려도 똥색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러는 거야. 유니폼은 원래 하늘색인데. 가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지역기구(ARO-ICFTU)라는 거는 국제노동기구(ILO)하고 좀 다른 데예요.

ILO는 정부 쪽하고 너무 많이 결탁돼 있었던 거고. 이쪽은 그래도 자유노동기구인데, 거기 사무총장이 한국으로 오겠다 하니까 김영태가 이 사람들 비행기 표까지 준비해서 데려온 다음 그냥 여행만 시켜주고. 하여튼 그럴 정도로 동일방직 사건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했어요. <르몽드>에도 이 사건이 다 났어요.그 정도로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셌던 거지. 그래서 김영태 섬유노조 위원장은 어떻게든지 이걸 없애는 게 자기 임무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방직 노조와 연대투쟁을 하면서 사정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렇게 연대를 해준 곳이 기독교단체나 JOC 같은 단체도 있고, 여튼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아까 이순자 동지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청계노조도 동일방직과 연대투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소선 어머님 얘기도 나왔고, 또 노동 교육을 하는 곳에서 전태일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청계노조에 대해서는 전에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정명자 제가 그때 생각을 했는데, 기업주들은 소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정권이랑 붙어서 해먹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수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다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산업선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자연스럽게 다 나오잖아요.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이소선 어머니 재판도 나오고 장기표 선생님 재판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회자 청계노조에 대해서도 나오고.

정명자 그럼요. 청계노조뿐만 아니라 반도상사가 노동조합 만들었다더라, 그런 얘기를 다 공유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또 그 당시에 가장 치열한 투쟁을 했던 곳이 청계피복이잖아요 청계피복은 노동교실이 폐쇄


78. 3. 27
동일사건대책위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성 명 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장 귀중한 일군인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인권이 동물이하로 유린되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참을 수 없어 여기에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난 2월21일 사건이후 제반 사태의 진전을 지켜볼 때 우리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여러가지 악랄한 행동들을 목격하였다.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똥물 사건"과"조화순 목 사를 때려잡자"는 선동구호며 사람다운 대접을 요구하여 단식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성직자및 민주인사에 대한 기업주측과 노총과 관계당국의 비열한 태도며 갖가지 교활하고도 악랄한 수법으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성직자들을 우롱하는 간악함이 양식있는 온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동일방직 사건에서 빚어진 이와 같은 모든사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가져온 피할수없는 결과라고 우리는본다。 우리는 동일 방직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이모든 고난과 수모를 전체노동자들이 마찬가지로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보고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수난받은그들을 위해서 적극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밝힌 여러성명들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동일방직측의 야만적 폭력과 만행에 의해 고의로 노사분쟁을 악화시켜 직업을 박탈당한 동일방직의 근로자들을 무조건 복직시켜라。
2。 소위 "조직행동대"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3。 정부당국은 기독
약속대로 이행하라
4。 동일방직 노동자들
다가 연행된 김병
5。 아무이유없이 연
무, 노동자들을 속
6。 동일방직의 모든
만약우리의 이같은
습태도를 보이지 않
당국은 책임을 져야
동일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

고 문: 윤보선 함석헌 김관석 천관우 조덕현 김창희
김행득 조용술 조남기

위원장: 김병상　　총 무: 이창복
부위원장: 김찬국 공덕귀 성내운 송건호
위 원: (무순) 문익환 신중선 김상근 박재봉 이중수
박정수 김진경 구본중 김승훈 함세웅 오태순
양 홍 홍성우 황인철 이돈명 백나청 김윤수
계훈제 윤반웅 박광재 이국선 전학석 문동환
서남동 김지길 황을성 이철상 이재선 김태암
황상근 신현봉 최기식 안승길 이계창 김병재
정태기 안중필 안성렬 이신범 백기완 신경림
염무웅 조태일 김주영 윤흥길 신상웅 임헌영
구중서 이우정 유운필 은명기 김대식 나선정
이문우 주재숙 이규상 임광영 임홍기 이철용
박용길 최성묵 이중헌 노명식 박병기 이강언
신익호 권호경 강원용 이해동 류강하 정호경
김광혁 이한구 권오정 곽동철 송기인 박문식
김성용 서상채 정규완 문정현 김영신 남정현
임정남 이시영 송기원 이호철 김규동 표문태
황명걸 조세희 김창완 박태순 오충일 조승혁
신동욱 김동길 안병무 김용준 한완상 안재웅
정상복 이천환 이두성 이재정 조화순 전병호
서명섭 조성교 박세경 김윤식 홍남순 연명진
조지송 김재돈 조용율 박건순 한봉주 장덕호
실행위원: 김병상 김찬국 조승혁 이창복 오태순
조화순 인명진 안성열 박태순 백기완
허병섭 김병곤 이우정

동일방직 사건 긴급 대책 위원회 성명서, 전태일재단, 1978.

되면서 투쟁이 가열차게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마석의 묘역에 가는 것 자체도 막았었어요.

사회자 맞아요. 마석도 못 갔어요.

정명자 저희들은 3교대라서 시간만 나면 어머니 재판, 그다음 장기표 선생님 재판. 또 저는 노동교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해고당하기 전에 청계피복으로 가서 견학을 했어요.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만한 공간.

사회자 노동교실.

정명자 아니, 노동교실은 그때 7층인가에 있었고 그 상가 밑에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 공장을 직접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회자 평화시장 공장.

정명자 예, 보니까 허리도 펼 수가 없고. 그래서 무조건 시간만 나면 청계랑 같이. 그런 동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끼리 시쳇말로 청계가 강렬하냐 동일이 강렬하냐, 너네는 옷 벗었지?(웃음) 이러고. 그럼 나는 너네는 뛰어내렸어. 내가 길 가면서 다 봤어.

사회자 아, 그때 와 있었구나.

정명자 그럼, 길 건너편에서 다 보고 있었지. 저기 들어가면 좋겠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바깥에서 봤지.

이순자 9·9 사건 때 왔었어요?

정명자 그럼요.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워낙 경찰들이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네 집에 또 우리가 많이 갔어요. 농성하고 힘들어서 가면 엄마가 큰 솥에다 된장국을 끓여 먹으라고 주고.

이순자 어머니가 준 게 아니고 사회자님이 반찬 해주고 다 끓여줬어요.(웃음) 우리 진짜 많이 해줬어.

정명자 어쨌든 원풍모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 지부장이 버티고 있으면서 잘됐고. 동일방직이나 청계피복 같은 경우는 사업장은 달라도 다 야들야들한 여자들이잖아요. 어머니가 앞장서 계시긴 하지만. 나는 어머니 만나 뵙고 어머니가 그렇게 목소리가 작은지 몰랐어요. 어머니 상상했을 때는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목소리로 야!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청계피복의 그 치열한 노동교실 투쟁을 지켜보면서, 이야, 진짜 청계피복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회자 나체 시위나 똥물 사건과 같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그러다 나중에 해고도 당하고. 그리고 혹시 협신피혁 사건이 있는데.

정명자 알아요. 민종진.

사회자 네, 민종진. 그분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때도 다 거기 와서 같이 투쟁했죠? 그때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최연봉 나는 전태일의 분신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그렇게 죽을 생각을 하나? 그런 충격을. 또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선교회 목사님도 여성 노동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사업장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동일방직이 여성 집행부로 바뀌기까지 목사님과 산업선교회의 역할도 꽤 컸던 부분이에요. 저는 운 좋게 그 초창기에 고생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노동조합을 알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의 작업 조건 등이 개선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물론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회자 조금씩 개선이 됐죠?

최연봉 네,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어디를 가라, 교육을 가라, 모여라, 이러면 우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갔던 것 같아.

사회자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최연봉 예, 무조건. 아카데미 교육도 가라, 그러면 가고. 새마을 교육도 가라면 가고. 오늘 청계의 싸움이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로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노동조합에서 하라는 건 그냥 다 했던 것 같아.

사회자 그런 노동운동 과정에서 산업선교회 교육이나 크리스챤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연대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당시 전태일과 청계 노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동일방직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이유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정명자 당연히 미쳤죠.

최연봉 당연히.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보면 그렇게 애틋하더라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고 안되고.

사회자 왜 그랬을까요?

최연봉 왜 그랬는지 어머니를 보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저렸어요. 훌륭한 아드님을 잃으신 것에 대한 마음이겠죠. 그런데도 저렇게 열심히 노동 현장에서 싸움을 하는 데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사시는 걸 보면 그에 대한 감동이 또 있었고.

이순자 우리 같은 경우는 전태일 동지가 분신하지 않고, 어머니가 운동을 안 하고, 또 친구분들이 안 했으면 우리는 노동조합이 없어요. 영원히 없었어요. 구조상 우리는 단일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못했는데, 전태일 동지가 분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게 되고 어머니랑 친구들이 같이 아들의 뜻을, 친구의 뜻을 이뤄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진짜 친구들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초창기 한국노총에서 보내준 사람이 지부장을 해서 친구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아무 실무도 모르니까. 친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하는데, 어머니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무는 가르쳐주지만 강력하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을 내쫓은 과정도 있고.

또 교실이 없으니까 교육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일 없을 때 교회, 목요기도회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장준하 선생님이 의문사로 돌아가셨을 때 그해 추석에 어머니가 나랑

숙희, 원섭이 데리고 윤보선 대통령, 함석헌 할아버지, 장준하 선생님댁에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런 걸 좇아다니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진짜 돈들이 없으니까. 특히 농성을 하면 다음 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거기 국숫집이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해가지고 와서 국수를 사주면 그거 좀 먹고 했어요. 진짜 내가 봤을 때 어머니가 없었고 그 친구분들이 없었으면 청계노조는 영원히 없었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친구분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다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노동조합을 하면서 의식이 점점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풍을 가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쇼룸 같은 데 가니까 으리으리한 거예요.(웃음) 운동장도 넓고 축구도 하는데 진짜 부럽죠. 우리는 그런 게 없었고. 그런데 동일방직도 오늘 새로운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가서 시위할 때 보니까 조그마하나마 운동장도 있고, 사업장은 내부의 속이 어떻든 크고 좋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다만 우리가 좋았던 점은 전태일 동지가 알려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많이 찾아와요. 풍천화섬 박숙녀 사건, 그리고 양승조 지부장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투쟁도 했고. 그것도 하나의 연대고. 그다음으로.

사회자 협신피혁.

이순자 협신피혁은, 이제 우리 집행부가 바뀌었어요. 이승철 씨에서 양승조 씨로 바뀌면서 저도 그때 노조 부녀부장으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자마자 집행부 대의원대회 전날에 민종진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의원대회 끝나고 민종진 씨 집으로, 병원으로 좇아다니면서 농성을 계속하고.

사회자 당시 경인 지역 노동자들이 모여서 했어요.

정명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지금 막 튀어나오잖아요. 내 머릿속에 그게 충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최연봉 가스에 질식돼서 죽은 분. 나는 민종덕 씨 동생인 줄 알았어.

정명자 형이에요. 실제로.

이순자 형이고요. 폐수처리장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거잖아요. 경비 절감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민종덕 씨가 총무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총무부장 형이 그렇게 됐으니까 집부터 뭐 다 찾아다니고 했어요. 그러다 장례식 끝나고 또 가두시위하면서 노동청 유리 깨뜨리고 해서 우리가 다 연행되었을 때 또 경인 지역 각 노동조합에서.

최연봉 무서웠어.

이순자 유동우 씨랑 박문담 씨가 분수대에서.

최연봉 노동청 앞에.

이순자 그래, 분수대 앞에서 그랬던 거.

사회자 하여튼 당시에는 아까 정명자 동지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뭉쳐야 살고 같이 싸워야 한다, 또 같이 싸우면서 일정하게 성과도 내고. 성과 내고 나서 또 깨지고. 이런 과정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니까 투쟁이 삶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그때는 어느 투쟁장에서나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여성 노동자들이 같이 투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투쟁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거죠. 정명자 동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투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해부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조 해부식. 그러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당해야 되나?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명분도 합리적으로 찾으려 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하니 그걸 깨고 바꾸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건 교육이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당시 종교 단체, 학습 단체 들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과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서로 용기를 가지게 됐고. 굉장히 과학적이었어요. 그냥 무데뽀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쪽이 상당히 무데뽀였어요, 힘으로만 밀고. 노동자들은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명분을 찾아 운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대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연봉 동일방직 싸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해주셨죠. 학생들도 그랬고. 노동조합 쪽에서도 동일방직에 보내줬던 지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죠. 우리 동일방직 사건으로 감옥 가고, 잡혀가서 징역도 살고 매도 맞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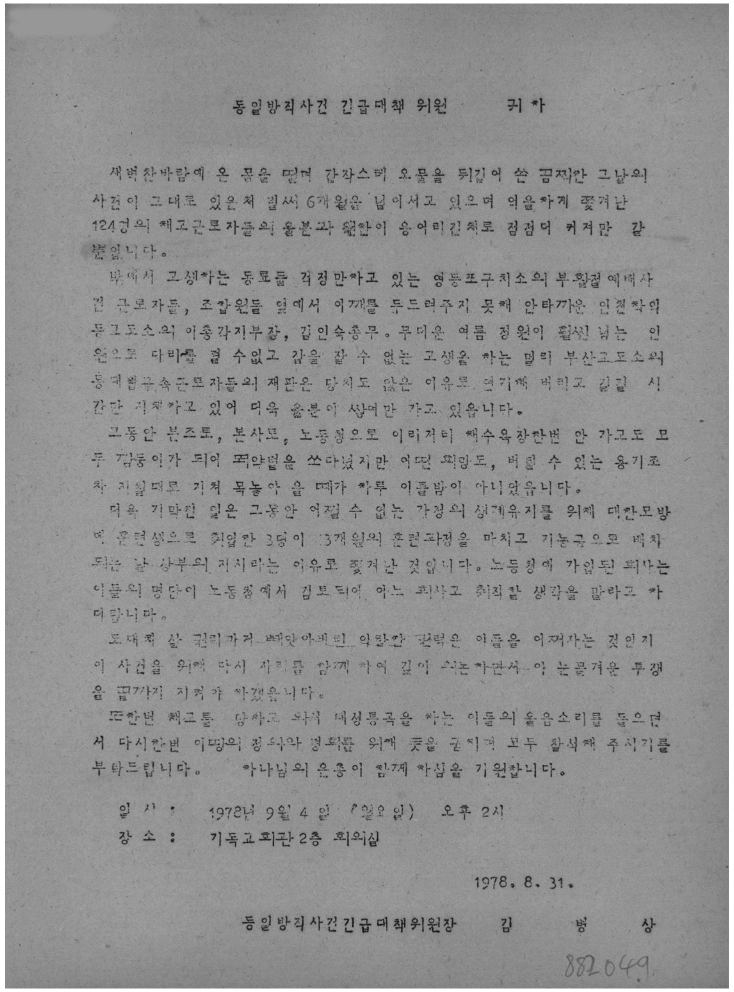
사회자 그만큼 본인들이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적으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명자 동지는?

정명자 우리는 투쟁의 현장이 교육장이었어요. 우리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비폭력 투쟁을 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끌려가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각 사업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투쟁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잔업 거부하는 거나 집회하는 거. 청계피복 같은 경우에는 노동교실을 사수하기 위해 치열히 투쟁했던 것들. 뛰어내리고 할복하고 그런 일들을 찾아가 보면서, 이런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전태일 열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자기가 혼자 고난을 감수하면서 겪은 고뇌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죠. 또 그런 결단을 내리고 희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은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랬던 부분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갈라설 수 없죠.

사회자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

정명자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다 한 식구나 다름없는 거지. 왜냐하면 전태일 열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굴리다 못 굴린'과 같은 그런 글을 쓴다는 건 자기를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청계 시다들, 그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개선하려고 했을 때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헌신성은 우리가 어느 성경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고. 우리 동일방직 나체 시위도 그렇고. 다들 충격적이었던 거잖아요.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 위원 귀하

새벽찬바람에 온 몸을 떨며 갑작스레 오물을 뒤집어 쓴 끔찍한 그날의 사건이 그대로 있은채 벌써 6개월을 넘어서고 있으며 억울하게 쫓겨난 124명의 해고근로자들의 울분과 원한이 응어리진채로 점점더 커져만 갈 뿐입니다.

밖에서 고생하는 동료들 걱정만하고 있는 영등포구치소의 부활절예배사건 근로자들, 조합원들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지 못해 안타까운 인천교도소의 이총각지부장, 김인숙총무. 무더운 여름 정원이 훨씬 넘는 인원으로 다리를 펼 수없고 잠을 잘 수 없는 고생을 하는 멀리 부산교도소의 동대법구속근로자들의 재판은 당치도 않은 이유로 연기해 버리고 길길 시간만 지체하고 있어 더욱 울분이 쌓여만 가고 있읍니다.

그동안 본조로, 본사로, 노동청으로 이리저리 해수욕장한번 안 가고도 모두 깜둥이가 되어 뙤약볕을 쏘다녔지만 어떤 희망도, 버릴 수 있는 용기조차 지칠대로 지쳐 목놓아 울 때가 하루 이틀밤이 아니었읍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그동안 어쩔 수 없는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대한모방에 훈련생으로 취업한 3명이 3개월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배치되는 날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입니다. 노동청에 가입된 회사는 이들의 명단이 노동청에서 검토되어 어느 회사고 취직할 생각을 말라고 하더랍니다.

도대체 살 권리마저 빼앗아버린 악랄한 권력은 이들을 어쩌자는 것인지 이 사건을 위해 다시 자리를 함께 하여 깊이 의논하면서 이 눈물겨운 투쟁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읍니다.

또한번 해고를 당하고 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다시한번 이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뜻을 굳히며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일 시 : 1978년 9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

1978. 8. 31.

동일방직사건긴급대책위원장 김 병 상

882049

동일방직사건 긴급대책위원회 사건 규탄 모임 안내문, 전태일재단, 1978.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인생에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도 되게 많이 있고, 잊어버린 분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서 어떤 교훈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를 만들어내기까지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투쟁도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자부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파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사회자 맞아요, 아파만 하지 말고.

이순자 물론 아카데미 교육이나 야학 같은 곳에서 교육도 많이 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진짜 교육은 자체 교육이었어요. 자체적으로 노동교실에서. 그러니까 75년, 76년에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많이 했어요. 노동교실에 육영수 여사 사진을 떼고 전태일 동지 사진을 붙이고. 노동교실에 가면 '나는 돌아가야 한다'는 전태일 열사의 일기 중 일부가 있어요. 그걸 보면 누구나 벌써 마음이 다 달라져요. 노동교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일기를 가지고 많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도 신동엽 시집이라든가 여튼 좋은 책이라 그러면 다 사서 읽어보고. 판금 된 책도 어디서 구해와서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태일 동지 자체가 교육이었어요. 전태일 동지가 느꼈던 노동 조건을 우리가 다 느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완전히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 또 어머니 재판 과정을 통하면서 느낀 당당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6. 투쟁과 삶

사회자 그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듣고, 오늘도 또 들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순자 동지가 얘기할 때 나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명자 동지나 최연봉 동지는 어땠는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살았는지.

정명자 저는 아이들 키울 때 투쟁가를 다 들려줬어요.(웃음) 그러니까 엄마, 나 혹시 대학 가면 투쟁가 분석해볼 거야, 그랬었거든요.

사회자 지금 아들이 몇 살이에요?

정명자 지금 34살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키웠고. 저는 사실 결혼을 거의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결혼을 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댁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고. 또 결혼하고 나서 산동네에서 한 10년 동안 세입자 대책위원회 하면서 주거권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순자 언니처럼 감추지는 않고.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영향이 되게 많았어요. 동생들이 대성목재 다니면서 쫓겨났고 남영나이론에서 쫓겨났고. 그런데 저는 좀 이기적이었나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사회자 미안하지 않았어.

정명자 뭐냐 하면 이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선각자들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저는 지금도 식구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웃음) 그런데 운동이 잘되면 다 같이 잘 사는 거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권위적인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사람과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마 아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아들만 둘인데 엄마랑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최연봉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통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자 인간답게 사는 사회.

최연봉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배운 거예요. 또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블랙리스트가 우리를 또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탄압 속에서 성장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혼해서도 아이를 들쳐 업고 다니면서 투쟁 현장에 가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너네들이 좋은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애를 들쳐 업고 다니면서.

사회자 투쟁을 한 거예요.

최연봉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들을 많이 떼어놓고 다니고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이랬다고 하지만, 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미안하단 생각은 안 해요. 난 더 나은 사회를 너네한테 남겨 주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 부분은 좀 미안한데, 난 너희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어, 이야기를 하죠.

사회자 자랑스러운 엄마네요.

정명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야 돼.

사회자 엄마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 이순자 동지도.

이순자 저는 남편이 말단이긴 하지만 공무원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그래서 전 그 부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추도식이 11월 13일에 하는 걸 알면서도 못 가요.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정보과 형사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체부동 한옥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교황 오는데 여의도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여의도를 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보과 형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회자 감시 대상이었네요.

이순자 갑자기 찾아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얘가 느닷없이 여의도는 왜 가냐고 물어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나는 더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리고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이숙희 신랑 김영대에게 수배가 내려지니까 형사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시어머니 있는데. 형사가 나한테 김영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나는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못 하고, 보다시피 어머니랑 사는데 어디에 내가 숨겨줄 곳이 있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더 숨기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쭉 살다가, 나도 동네 근처에서는 어떤 활동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 통장을 맡게 됐어요. 그랬는데 아파트 회사에서 개발 지구라서 토지 등기가 안 나오고 건물 등기만 먼저 해준 거예요. 토지 등기는 나중에. 그런데 토지 등기할 때쯤에 IMF가 터져서 회사가 부도나고 이럴 때예요. 토지 등기를 안 내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노동조합에서 배운 게 있었으니까.(웃음)

사회자 역할이 있었네요.

이순자 사람들 다 모이게 주도해서 건설회사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 노래 부르고 해서 토지 등기를 따냈어요. 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여럿이 힘을 뭉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가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얌전하니까 그런 거 못 하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내가 부녀회비로 뭐 하냐? 이럴 때 차 빌려라, 일단 차 2대 대절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전철 타고 가자, 이렇게 해서 마포까지 갔어요. 전철 표 사서 다 나눠주고. 그렇게 건설 회사에 가서 주저앉아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동장님이 나중에 이 일을 알고 그런 거 하려면 동사무소에다 신고하고 가지 그냥 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신고하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신고하면 우리 못 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런 거야? 하면서.(웃음) 그렇게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도 있

어요.
내가 결혼을 하면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그래도 지역 사회에서는 소소하게 그런 역할은 했었어요.

사회자 노동조합에서 했던 역할들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셨네요. 지도자로서.

이순자 그런 거를 했었죠.

정명자 노동조합 활동했던 것들이 노동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 체화되어서 어디 가더라도 평생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서.

최연봉 나중에 지역에서 노동 상담하고 이러면서 조합주의라는 비판도 받고.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뭐랄까, 정치투쟁을 우선하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도 나는 꿋꿋하게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세력을 키워야 한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합법적인 거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힘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정치투쟁을 해도 평화 통일을 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 노동조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노동자들을 지켜내면서 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조합주의라고 하면서 비판할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회자 그래요. 70년대 노동조합들이 어용노조 중심의 현장을 민주노조로 바꿔내고 현장 중심으로 투쟁을 했는데, 나중에 학출들이 들어오면서 정치투쟁을 했죠.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민주노조들이 정치투쟁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조합주의, 경제주의라 하면서 비판을 해서 상당히 고통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소선 어머니도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지만 노동운동의 흐름이 또 바뀌면서 그 많은 비판들이 결국에는 옳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연봉 지금도 여전히 노동조합은 중요하잖아요.

사회자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감사한 것은, 여성 노동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노동 환경과 폭압적인 투쟁 과정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그에 대해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노동운동을 안 하고 돈을 벌었으면 더 잘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참 불행한 거겠죠. 내가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활동이 그 자체로 민주노조 운동이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들이라는 것.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순자 인생에서 노동조합을 안 걸 최고 잘한 일이라 손꼽아요. 그걸 몰랐으면.

최연봉 여기에 오려고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했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70년대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먹고살기 힘들었으니 이걸 해결하고. 또 사람대접을 받고 싶었던 상황도 있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자기 몸을 불살랐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먹먹한데.

지금 노동자들이 양쪽으로 굉장히 커지긴 했는데. 그럼 지금의 전태일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정명자 거기에 덧붙여서 80년대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철저한 조합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유일한 합법적인 노동자 대중 조직이거든요. 합법성이 커다란 명분인데, 이거 없이는 노동과 대중을 담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발전이 된 것 같고.

일부 사람들이 70년대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역할이 많았었거든요. YH 사건이 있을 때 제가 8월 12일에 갔었거든요.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방용석 지부장네 갔더니 야,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새벽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날 김경숙 동지가 그렇게 됐잖아요. 김경숙 동지와 YH 사건이 계기가 돼서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그 사건도 동일방직 똥물 사건 이상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 사람이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아 가잖아요. 여자들이 우스워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무 열심히.

최연봉 신민당사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서울에 와서 잤어요. 동일방직 몇 사람이 방 위원장 그 좁은 방에 가서 끼어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신민당사 앞으로 갔는데 사건이 이미 다 종료된 때야.

7. 결어

사회자 하여튼 70년대 노동운동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요. 전태일 사건 이후로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 동일방직이 여성 중심의 첫 번째 민주노조로 바뀌고. 그다음 원풍, 반도상사, 그리고 YH 사건 이런 걸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했던 대통령이 결국 노동자 사건으로 인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세계적으로도 정말 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분석되거나 평가된 것이 아직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그리고 또 같이했던 분들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계속해서 구술로 남아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번씩 하셔도 됩니다. 이순자 동지가 할 얘기도 많고 잘 해주셨는데.

이순자 저는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얘기를 쫙 적어왔어요.(웃음)

사회자 준비성이 참.

이순자 동일방직과 연대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고. 장충체육관에서 기습 시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습 시위한 거 보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다 끝나고 시위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고.

사회자 바로 잡혀가서.

이순자 그래서 기습 시위가 뭐지? 그럴 정도로.

사회자 소리 한 번 질렀는데 순식간에 와서 하나씩 다 끌고 나갔으니까.

최연봉 정말 순식간에.

이순자 지금도 기억이 많이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말도 못 꺼내고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말들을 자료로 한다니까 너무 좋아요.

계엄사 갔다 오고 난 뒤로는 완전히 무서워서. 꿈에서도 쫓기는 꿈만 꾸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기념관도 생겼고 그렇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구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명자 인천 지역에서 연봉 언니하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같이해왔는데. 그때 언니는 아기 낳아서 집에 있고 나는 노동상담을 할 때 87년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노동조합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와요. 우리는 왜 정치투쟁을 안 하느냐는 얘기 들었을 때잖아요. 나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정치투쟁이다, 그때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경유착이 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 대중 조직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양해야 된다, 춤추는 사람은 춤춰야 하고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글을 쓰고. 예를 들어 놀러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러 가야 되고.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모아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조합 현장에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정신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 그렇기 때문에 표를 바로 찍을 수 있지 않아요?(웃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자 우리가 하는 그게 다 정치 행위입니다. 연봉 씨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최연봉 마치죠. 우리 건강하게 즐겁게 삽시다.

사회자 그래요. 우리 서로 다 건강하게 즐겁게 삽시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구술 기록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부 전태일·이소선 정신의 확장 —밖으로 뻗어 나가기

인터뷰 5회차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14:00

왼쪽부터 나성자, 신순애, 임현재, 전순옥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서 흐트러짐 없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아마 그런 일을 혼자였으면 못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뤄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1. 청계피복노조의 해산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계피복노동조합(이하 청계노조)의 대외 활동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제4차 전태일노동구술기록사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전의 인터뷰들은 대체로 전태일 동지의 분신 항거로 청계노조를 설립하고 그 기틀을 굳게 다지는 과정에서 여타의 민주노조들과의 연대를 다루는 내용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된 내용은 유신정권의 종말과 그 뒤를 이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통치 아래에서 강제로 해산된 청계노조의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 과정에서 노동자, 대학생, 지식인 등 다양한 민주 시민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청계노조 지부장이셨던 임현재 선생님, 신순애 님, 나성자 님을 모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할 전순옥입니다. 먼저 우리 영원한 미스 나,(웃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나성자 저는 당시 '미스 나'로 불렸던 나성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순애 마지막 노조 해산 때까지 부녀부장으로 일한 신순애입니다.

임현재 노동조합 해산의 쓰라림을 책임자로서 직접 감당했던 당시 지부장 임현재입니다.

2. 서울의 봄과 4월 임금 투쟁

사회자 오늘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당시 꿈만 같이 즐거운 기억들을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의 총격으로 박정희가 사망하고 유신 체제가 종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서울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전두환의 쿠데타로 정국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청계노조 주변의 분위기도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노조 소식지에 대한 검열로 인해 노보 발행을 취소한 것도 한 사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계노조는 많은 분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임금 인상 및 퇴직금 지급 투쟁을 결의하고 파업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실 감옥을 갈 각오로 투쟁에 임했습니다. 결국 그 투쟁은 청계노조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사북항쟁 등 다른 노조들의 투쟁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계노조원들이 그들과 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워낙 어려운 과정에서의 투쟁이었기에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승리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세 분, 당시 임현재 지부장님, 당시 신순애 부녀부장님, 그리고 나성자 총무부장님, 기억나는 대로 세 분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파업 농성 투쟁을 결의하게 된 과정, 당시에 투쟁을 준비하는 심경은 어떠했는지, 상당히 엄혹한 시절인데 준비할 때 노조 사무실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또 그때 인상된 임금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그 안을 결정하는 과정, 투쟁했던 과정, 그리고 또 이를 끌어내기 위해 사업주들과의 노사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한 가지 더 같이 생각을 해 볼 거는 당시 농성장의 분위기는 어때했는지, 조합원들의 참여도는 어땠는지, 또 투쟁을 하는 동안 옥상 위에서 토론회도 있었고 노래도 부르고, 같이 거기에서 식사도 하면서 그러한 허드렛일들까지 많이 도와준 우리 조합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좀 많이 말씀해주시고요. 혹시 그 당시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함께했는지, 또 우리 젊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참여를 한 동지들과 후배들의 이름이 생각이 나는지.

이런 여러 내용들을 혼자서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서로 함께 생각하다 보면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얘기를 쭉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문을 트면 좋을까요? 우리 지부장님?

임현재 우리 파업 농성이 있었던 때가 80년인가요?

사회자 80년 4월.

임현재 80년이니까, 우리 노조가 결성이 되고 10년째 됐을 땐데. 처음에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유언과 함께 산화하셨고. 우리는 그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오직 그 일념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노동자들은 노조가 뭔지, 저 사람들이 과연 뭘 할 건지, 이런 걸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고. 사업주들은 노조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데 많은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노조를 깡패 집단이라고 흑색선전 하면서 몰아붙이고 그렇게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을 때. 우리는 조합원들의 가장 아픈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이런 고정 처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또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이 의식화가 돼야 노조가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그래서 노동교실을 만들고 또 노동교실에서 중등교육 과정과 생활에 필요한 교육들을 하면서 서로 또 친해지게 하고. 그렇게 해온 노조활동 결과에 따라 노조는 더 강해졌고, 의식화도 많이 됐고.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을 때가 그때쯤. 아마 그렇게 10년 동안 성장을 해왔었고.

그때 사실은 1971년 1월에 정식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그 노사협의회에서 고정 처리라든지 근로 조건 개선, 유지 이런 거에 대한 회의는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아마 5, 6년이 지난 다음에 단체협약이 체결됐을 거예요.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임금, 근로 시간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런데 결정이 되더라도 이게 지켜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사장이 그렇게 하자고 지시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노조 간부들이 마치 근로감독관이나 되는 것처럼 시간 단속도 하러 다니고, 또 주휴제 단속도 하고. 체불 임금 진정을 받아서 체불 임금을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온 데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결정하기보다도 결정된 것을 지키는 것이 제일 더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근로 조건이 점차 조금씩 개선이 돼왔던 것이죠.

또 유신정권의 노동자 탄압 또는 배제, 사용자 편들기, 고도성장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근로 조건은 굉장히 억눌려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당시 79년 박정희 유신 체제가 몰락을 하니까 그때 노동자들의 높아진 의식이 분출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력

한 파업 또는 농성 투쟁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래서 1980년 4월. 4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투쟁이 그러한 10년 과정을 쭉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성장해서 그러한 투쟁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인 거죠? 나중에 그 얘기를 좀 더 하기로 하고 당시 신순애 부녀부장님,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신순애 제 기억으로는 노사 협의를 하는데 계속 협상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노사 협의 들어가는 간부들하고 운영위원들이 조합원들한테 오늘은 끝장을 내자, 우리 요번에 들어가면 안 나올 거다, 노사 협의가 결렬되면 나중으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로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당시 일부러 조끼를 입고 주머니에다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좀 넣어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결렬이 돼서 동화시장 옥상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단식, 그러니까 노사 협의 참석한 간부하고 조합원들이 농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모이기 시작해서.

사실 저는 그때 기억이 안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이틀간인가 아마 농성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더라고요. 그래서 링거를 맞고 오니까 평화시장 노조 사무실 옥상에서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시 합류했을 때 기억으로는 조합원들이 앞에 나가서 얘기를, 우리 임현재 선배님은 지부장이었으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만 얘기했고. 당시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토론도 하고 때로는 구호도 외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창신동에다가 공부방을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노동교실이 없었으니까 내가 방을 하나 얻어서. 내가 78년도 9월인가 10월쯤 부녀부장으로 상근하면서 그때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한글반에 있던 공순녀라는 애가 삼정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 애 엄마가 자기 딸을 돈 안 받고 한글을 가르쳐준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임금 인상은 조금 보류하더라도 퇴직금만큼은 한번 지켜내보자, 이렇게 싸움을 시작했는데. 공순녀 엄마가 들통으로 하나 잡채를 해와서 나눠 먹은 기억이 있고요. 또 임기만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뭘 했나? 생각해 봤더니 화장실을 맘대로 못 가니까 깡통에다가 조합원들이 대소변 본 거 자기가 그거 치웠다고. 그래서 그게 하찮은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큰일 했다고 내가 그런 기억도 있고요.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소선 어머니가 야, 우리 작전을 짜자, 이 사람들이 항공 촬영을 하니까 우리가 쌀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쌀을 잔뜩 사 올 순 없잖아요. 공장에 내려가면 기레빠시(재단하고 남은 천 조각. _편집자 주)가 많으니까 경비 몰래 남자 조합원들하고 쌀가마니에 기레빠시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기억도 나고.

실제로는 하루에 쌀을 2~3가마니,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쌀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항공 촬영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사회자 먹을 거를 많이 준비하고, 이순신처럼.(웃음)

신순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그 박재익 친구, 이낙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당시 청계천에 고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죽겠다고, 자기가 제2의 전태일이 되겠다고. 그래서 또 그 친구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랬더니 삼일고가도로 지나가는 승용차, 택시가 서서 그걸 보는 바람에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적도 있어. 그런 기억도 있고요.

사회자 이게 며칠 동안 진행이 됐었죠? 꽤 오래됐었죠. 총 11일.

11일 동안 하면서 장례식 이런 것도 막 했잖아요.

신순애 근데 그 기억은 제가 잘 안 나요.

사회자 상여 만들어서 위에서 돌리고.

임현재 상여 투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예요.

사회자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상여 투쟁을.

임현재 상여를 만들어온 것은, 물론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합쳐졌겠지만, 김태원이 그때 상여를 만들자, 그래서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죠. 여기에 무슨 상여가? 그랬더니,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조합원들을 응집시키고 단결시키고 하는데. 그 옥상이 꽤 넓었잖아요. 그래서 옥상을 빵빵 돌면서 상여를 메고 다녔고.

사회자 의미는 뭐였어요? 거기 상여 투쟁을 할 때.

임현재 노동자의 권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사회자 맞아, 노동자의 권리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자.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그때 그 생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우리 나성자 총무부장님께서.

나성자 총무부장이 아니고요. 경리예요.

신순애

"우리 요번에 들어가면 안 나올 거다, 노사 협의가 결렬되면 나중으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로 끝장을 보겠다, 그래서 당시 일부러 조끼를 입고 주머니에다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좀 넣어놨던 것 같아요."

사회자 그냥 경리?

임현재 원래는 경리부장인데, 월급 많이 안 주려고.(웃음)

사회자 나성자 경리,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 어땠어요?

나성자 조합원들이 1~2명씩 모이면서 그게 또 큰 힘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굶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서 먹여야 되니까 아마 옥상에 불을 피웠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스 같은 게 없었으니까.

신순애 가마솥 2개 걸어놓고.

나성자 중부시장에 가서 쌀을 사다가. 또 김을 박스로 사다가. 반찬은 없었던 것 같고요. 김, 그냥 밥을 해서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사회자 밥 어떻게 했어요?

나성자 그냥 큰 솥에다가 장작을 때서. 한쪽에서는 조합원들이 경찰들이 들어올까 봐 사무실 문을 잠가놓고 할 때, 누군가는 또 밥을 먹여야 되니까. 누가 하자 해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그때 이순자 언니하고 맨 처음 같이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매일매일 새벽까지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하루에 쌀 한 가마?

신순애 세 가마.

나성자 한 가마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신순애 한 끼에 한 가마 정도 됐지.

나성자 그러니까 그 밥을 전부 해야 하니까 저는 잠을 잘 시간이 없었어요. 4월이니까 굉장히 추웠죠. 중부시장에 가서 단무지 사고 소금, 참기름, 김 이게 전부였어요.

사회자 그래서 주먹밥처럼.

나성자 하나씩 해서 먹고. 그래도 조합원들은 날이 갈수록 힘이 났어요.

사회자 날이 갈수록 조합원들이 더 많아졌죠. 거기 옥상에 수백 명이 모여서 농성하니까 그 옥상이 무너진다고, 경비원들이.

나성자 네, 경비들이 내려가라고.

사회자 옥상 무너진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어떤 조합원들이 그래도.

나성자 굉장히 어린 조합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선애, 고영화 이런 친구들 생각나고. 최현미, 조미자, 박태숙, 김선주, 김덕순 이런 친구들도. 그때 되게 어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렸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사회자 40년 전이니까

나성자 네, 40몇 년 전이죠. 한 4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서 흐트러짐 없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아마 그런 일을 혼자였으면 못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뤄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사회자 아까 신순애 부녀부장이 얘기했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쌀이 많이 있는 것처럼 쌀가마를 쌓아놓고 준비된 것처럼 하자고 해서 가마를 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참 이순신이 일본하고 싸울 때 계곡 위에서부터 바다로 허연 물을 막 내려보냈잖아요. 이렇게 군사들이 밥을 많이 먹고 있다.

나성자 경비들이 알면 새어 나가니까. 한쪽에선 경비가 오는지 지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가마니로 쌀가마를 만들고.

사회자 자투리 원단을 막 집어 넣어서.

나성자 황만호 같은 경우는 일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경비 보는 걸 최우선으로 했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힘쓰는 일은 신광용, 박해창, 김준용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죠.

신순애 그때 박재익이나 지금 죽어버린 이낙현도 일을 했는데, 또 평화시장인가? 남자 있었어요. 등산 다니다가 죽은.

나성자 아, 맞아요.

신순애 그 친구가 힘이 참 좋아서.

사회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신순애 얼굴이 넓적해서.

나성자 잘생겼었어요.

사회자 등산 가다 죽은 친구 있었어요.

신순애 약간 박재익하고 좀 닮았어. 그래서 둘은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 나머지는 몇 번 갔다 왔어. 그걸 계단에서 갖고 올라와야 하니까. 또 경비가 보면 안 되니까, 어쨌든 내가 이름이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정말 애썼어. 그런 친구들이.

임현재 주삼인가?

신순애 아니, 아니 주삼이 말고 또 있었어요. 있었고, 주삼이도 있었는데.

사회자 임현재 지부장님께서는 당시 지부장으로 모든 걸 다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임현재 그때 내 철학이라고 그럴까? 이건 내가 중단은 시키지 말자.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앞서지도 않을뿐더러 중단은 시키지 말자.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소리는 안 했던 거 같고,

안 하기로 했고. 나는 노사협의회장에서 역할이 크잖아요. 사업주들이 안 나오면 좀 나오도록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한 그런 교섭들. 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노사협의회의 사용주 측 대표로는 유인규 회장이 있었지만, 최용갑 사장이 좀 논리적이고.

사회자 동화시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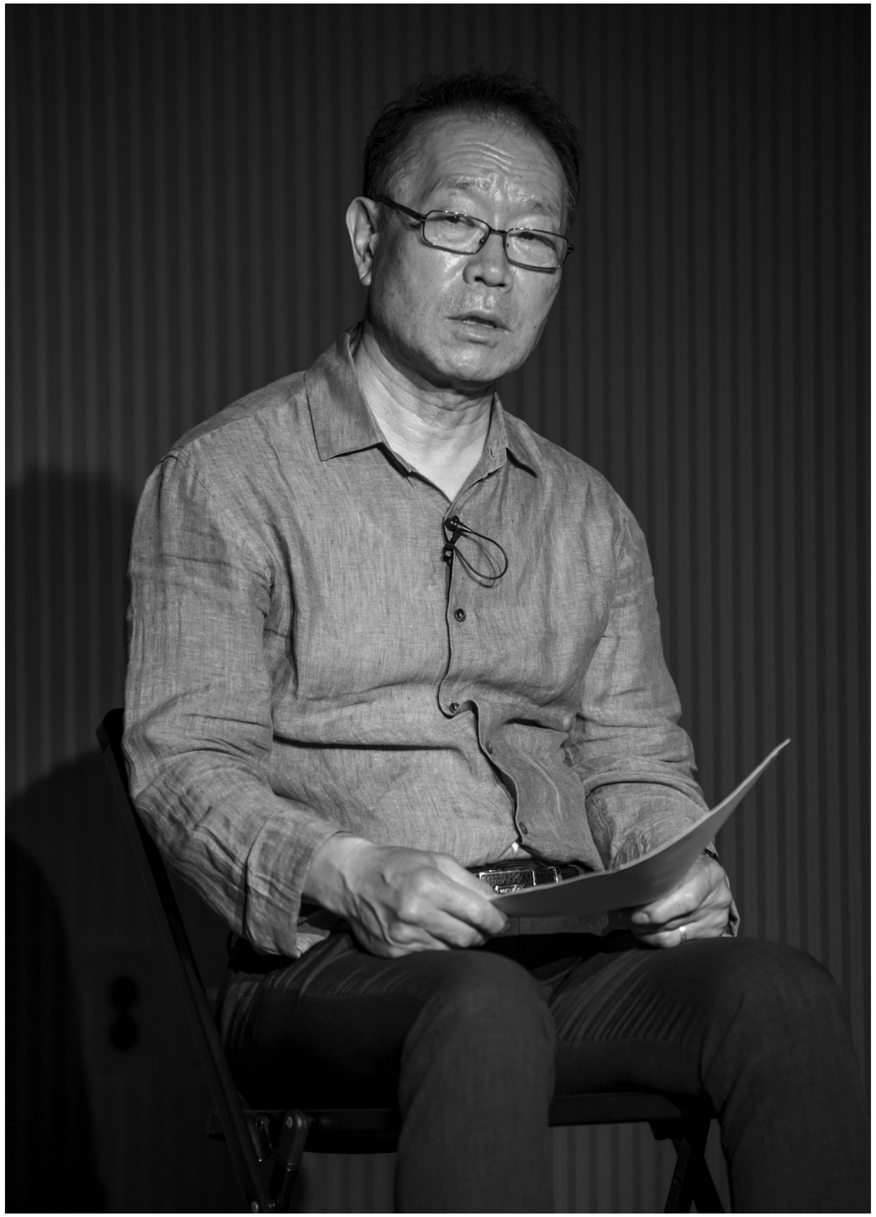
임현재 그 양반은 동화시장 전무였으니까. 동화시장 대표는 자기 공장은 통일상가에.

사회자 제가 통일상가 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임현재 그래도 최용갑 사장이 사용주 측 대표들이 박차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걸 못 하게 제지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고. 노사협의회 시간이 어떤 때는 엄청 길어지잖아요. 끝날 시간은 없고. 그럼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화장실은 가지 말자, 이런 것도 내기를 하자, 가면 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노사협의회 진행을 쭉 지속했던 것이 군데군데 생각이 납니다.

사회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결국에는 노사협의가 청계노조의 승리로 끝난 거죠.

임현재 승리를 하는 과정은……. 우리가 투쟁을 할 때는 어쨌든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는 깎아줄 것을 계산하고 목표를 정한다는 말이죠. 임금 100% 인상, 그럼 처음부터 100%가 다 될 거라는 걸 목표로 하는 싸움은 없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한 선. 이 정도면 우리가 통과를 시키자, 그런 게 사실 있었는데. 그걸 또 우리끼리라도



임현재

"워낙 조합원들의 열기가 높아서 우리가 힘이 났죠. 거기서 회의 그렇게 하고 와도 또 노조 사무실에 오면 으쌰 으쌰 하고 또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미리 공개할 수도 없는 거니까. 사용주 측에서 못 하겠다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좁혀서 타협을 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게 정말로 어려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섭에 성공해놓고도 실패한 걸로 되잖아요. 너무 많이 양보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탈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순애 아니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임금 인상은 우리가 양보를 하자. 왜냐하면 임금 인상은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퇴직금만큼은 꼭.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16명 이상이 상시 근로를 해야 퇴직금이 되니까. 여름에 사장들이 1번 7번 한두 달 쉬었다가 와, 그러면 미싱사들도 좋아하거든요. 일거리 없는데 나오라 그러면 그것도 차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노동조합이 10년 되니까 우리들만 똑똑해진 게 아니라 사장들도 똑똑해져가지고 보내는 거야. 법이 교묘해서 365일 상시 16명이 돼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큰 공장들이나 받았지, 우리는 감히 받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10명으로 줄이면 우리가 최초로.

사회자 10인 이상 사업장.

나성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근로기준법 이상을 쟁취한 거니까 저는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 거죠.

임현재 최저 기준이라도 지키면 됐는데, 너네들은 왜 10인으로 하느냐? 반박 논리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사회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부장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의 기대치를 너무 높이 잡아서 협상이 깨지면 그것도 문제고, 또 협상은 됐는데 너무 낮게 잡아도 문제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만큼 적절하게 조합원의 눈높이에서 타결을 봐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우셨겠어요.

임현재 그렇죠. 그럴 때 또 문제는 강경 투쟁론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정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는 못 가니까. 그걸 깰 수는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 난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서 노사 분규가 있을 때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타협을 하고 종료가 되느냐? 그 종료된 결과를 놓고 양측이 서로 그래, 부족하지만 너 잘했어, 이렇게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자 책임감이 참 무거웠겠습니다.

임현재 워낙 조합원들의 열기가 높아서 우리가 힘이 났죠. 거기서 회의 그렇게 하고 와도 또 노조 사무실에 오면 으쌰 으쌰 하고 또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됐고.

사회자 나성자 총무님은 노동자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 열흘 동안에 걸친 투쟁에서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나성자 그니까 사무실 안에서 저는 언제나 제 스스로 아웃사이더였거든요.(웃음) 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중도를 잘 지켜서 하는 게 내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 어렸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사회자 무섭지 않았어요?

나성자 무섭다기보다 내가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나 그게 숙제처럼. 어디까지 해야지?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누구 손이라도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쌀도 사 와야 되고 살림을 다 해야 되니까. 끝까지 같이 해야 되고. 또 저 혼자였으면 못 하죠. 그때 순자 언니가 있었거든요. 이순자 언니랑 같이.

사회자 이순자 씨가 어떤 부서 간부였죠? 그때?

나성자 아니에요. 간부는 아니었고 조합원이었어요. 아마도 여자는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은 순애 언니하고 나하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순자 언니랑 같이 정말 너무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밥을 했어요. 조합원들 안에서 투쟁하는 거 못지않게, 우리도 밥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밥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조금 먹고는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1번, 그 밑에 식당에 가서 곱창전골을 1인분만 주세요, 그랬어요. 둘이 가면 그 아저씨가 좀 넉넉하게 줘서 둘이 1인분을 먹었어요. 매일은 아니었고. 열흘 중에 1~2번? 많으면 3번.

신순애 반칙이야.(웃음)

나성자 반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안 먹었으면 밤새워서 그 밥 못 해냈을지도 몰라요.

사회자 지금 우리 신순애 부녀부장님이 배신감 느끼고 있어요.(웃음)

나성자 배신감 느껴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웃음)

사회자 어쨌든 그렇게 쌀을 사 오고 밥을 하고 모든 먹을 거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성자 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회자 네, 잘 해냈고. 어쨌든 그 엄혹한 전두환 계엄령 하에서 그걸 한 거예요. 4월에 시작했는데 5월 5일이 되면서 계엄령이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고. 당시 투쟁을 할 때 학생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지원 투쟁을 하지는 않았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신순애 저는 우리 할 때 온 건 모르겠고요. 79년도인가? 콘트롤데이타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회자 우리 그때 투쟁할 때는 없었어요?

신순애 사실 그때는 누가 왔는지……. 그리고 오더라도 아마 지부장님이나 혹은 어머님이 관리를 하셨지, 우리들은 거의 안 했던 거죠.

사회자 지부장님은 기억나는 것이.

임현재 나는 사실은 학생들하고 별로 관계를 안 했어요.

사회자 그건 어머니가 많이 하셨겠네.

임현재 그 전부터 학생들하고는 별로.

신순애 우리 11일 동안 투쟁할 때 외부에서 와서 인사하고 그런 적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다.

사회자 400~500명 되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옥상에서 그렇게.

신순애 자체적으로 강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랬지, 외부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밑에 이미 경찰들이 있어서 마음대로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사회자 그럼 이 승리는, 처음 임현재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우리가 투쟁하고 함께해온 노동자들의 의식 그리고 훈련된 노동자들의 힘이 모아져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임현재 그렇죠.

사회자 마지막에 타결됐을 때 정말 옥상이 무너져라 만세 부르고 그렇게 했었죠?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신순애 선배님은 그래도 하늘로 올라가 봤잖아, 조합원들이랑.(웃음)

사회자 네. 하여튼 그렇게 잘됐는데, 청계노조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가 사실 외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 사북항쟁이라고 있었죠(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사측의 착취와 어용노조에 대항하여 탄광 노동자들이 진행한 총파업 사건. _편집자 주) 탄광 노동자들. 그리고 경인 지역의 다른 노동자들,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청계노조가 투쟁을 해서 이기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소선 어머니와 조합 간부들이 그들에게 연대 방문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투쟁했다는 사례도 이야기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신순애 저는 79년도에 콘트롤데이타에서 임금 인상인지, 하여튼 데모를 한다고 그래서.

사회자 이 투쟁 끝나고 나서?

신순애 아니요. 그 전에. 마침 황만호가 잠깐 사무실에 왔는데. 저는 간부니까 조금 시간이 유도리가 있어서 지금 콘트롤데이타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위를 하면 늘 단식농성을 하고, 끝나면 배가 고파도 기껏해야 주먹밥이 다인데, 거기 갔더니 햄버거를 주는 거야.(웃음) 황만호가 누나, 우리 지원 유세 열심히 다니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비싼 먹을 것도 준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사회자 당시 사북의 탄광 노동자들이 상당히 투쟁을 심하게 했잖아요. 그때 서로 연대라든가 아니면, 이소선 어머니는 아마 거기에 가셨던 걸로.

나성자 네, 가셨어요. 누구랑 같이 가셨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갔다 오셔서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사회자 80년 4월 임금 인상 투쟁, 퇴직금 투쟁 등을 승리로 이끈 청계노조의 그 투쟁이 전국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우리도 하자, 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은 된 거죠?

임현재 그렇죠. 불을 지핀 거죠.

3. 청계노조의 해산과 저항

사회자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거는 청계노조 해산식. 해산식 성명서 발표를 통한 한국노총 민주화투쟁 과정에서의 이야기 등입니다.

그러고 나서 청계노조가 해산됐잖아요. 그다음에 여의도 한국노총 강당엔가 모여서, 동일방직하고 다른 노조들이 전부 모여서 노조 탄압 사례 발표하고 그럴 때, 그럴 때도 거기 참석하셨어요?

임현재 그때 서울의 봄이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노사 분규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사회자 원풍이나 동일방직.

임현재 그런 데보다도 우선 그 전에 사북. 그리고 경인 지역의 여러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때 제가 수원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육에 갔을 때 거기에서 사북 탄광에서 노동쟁의를 이끌었던 간부들이 와서 사례 발표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그 뒤에 몇 월인가 한국노총에서 섬유노조 조합원들이 점거를 하고 노총위원장 퇴진 외치면서 농성을 했었죠. 나도 거기 가서 발언도 했고.

사회자 우리 사례 발표 같은 거.

임현재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쿠데타 세력들은 일단 (당시 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_편집자 주) 정승화를 끌어내리고 자기네들이 정권 장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노동계를 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가 합수(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가지고 10일인가? 며칠 동안 조사받고. 또 너네는 해산이야,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듣고.

사회자 해산 명령을 받은 거지.

임현재 아니. 해산이다, 너네는 해산이다. 명령은, 지네들이 명령권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로 우리를 해산하냐?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며칠 안 있다가 그다음 해 81년 1월 6일 해산 명령서가 날아왔죠. 서울시로부터. 그걸 받고 보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는 그때는 정말로 당혹스럽고. 노조를 해산하는 방법도 있네? 이런 생각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사회자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임현재 예,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온몸에서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하루는 출근을 하니까 노조 사무실이 폐쇄돼버렸어요. 집기는 다 끌어가버렸고 문은 폐쇄해서 경찰들이 지키고 서서 올라가지도 못 하게 하는. 그래서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 하고 다방이나 이런 데 간부들 모여가지고 대책을 고민하고 숙의하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가. 계엄령 때문에 간부 회의도 제대로 할 데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사회자 모일 수 없으니까.

임현재 우리는 다방이라든지, 신순애 동지의 집으로 가서 회합을 하고. 하여튼 회합은 종종 했는데, 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사회자 신순애 부녀부장님. 또 그 당시 생각나는 대로.

신순애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회의를 했어요. 아까 지부장님 말처럼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어쨌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한 4번 정도 모였어요. 누구누구 모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김준용, 황만호는 꼭 참석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합수 들어갔다 나온 다음, 회의를 할 때 그랬어요. 아프리(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점거 농성하는 것을 의논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무서워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합수를 가보니까 이건 죽은 싸움이고, 그리고 내가 무섭다, 사실 나는 우리 집에서 회의하는 것조차도 무섭다, 그때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후에 우리 집에서 4번 회의했다는 걸로 전국에 수배가 돼서 저는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사회자 나성자 총무님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사무실이 문이 닫혔으니 어떻게.

나성자 지부장님이 회의를 갔다 오셔서 우리 노조가 해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지요. 우리 모두 해산 안 당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지만 위에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방법이 없었지요. 마지막 희망으로 어머니하고 저하고 원효로에 있는 큰어른이신 함석헌 할아버지 집에 갔었어요. 가서 우리 상황을 말씀드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드렸어요. 한참을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 하시면서 절망적으로 "할 수 없지"라고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큰 산 같았던 할아버지께서 먼 산을 보듯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큰 어른이니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너무 슬펐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회자 함석헌 선생님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절망이었고.

나성자 너무 절망이었죠. 그분한테 뭔가 희망을 얻을까 하고 갔는데 희망이 없고. 할 수 없지,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갈 수 없게 됐고.

사회자 희망이 다 없어졌네요. 그래요. 안타깝게도 서울의 봄은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하고 5월 광주의 피로 지게 되었죠. 당시 5·18, 진짜 5·18로 인해서 전국이 모두 꽁꽁 얼어붙었어요. 청계노조를 비롯한 노동

나성자

"제가 거기서 만 5년을, 사무실 폐쇄되기까지 했고. 그 후로도 언니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그랬으니 그런 거는 없었고. 뭔지 모르지만 이건 옳은 일이야, 이분들은 다 옳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옳은 일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도 모두 마찬가지였죠. 특히 섬유노조 이쪽으로. 그리고 신군부는 이소선 어머니를 수배하고 한국노총에 이른바 정화위원회라는 어용기구를 설치해서 청계노조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노조가 이에 저항하자 그들은 보안사로 청계노조의 임원들을 연행했고 가혹한 심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군부는 서울시장 명의로 노조 해산을 통보하고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무척 큰 상실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또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아프리 투쟁이죠. 아까 신순애 부녀부장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절망적이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한 투쟁이 되었겠죠. 그래서 청계노조가 불법적으로 해산된 과정과 이에 대한 저항으로 벌인 아프리 투쟁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노동조합, 사용자, 일반인들의 분위기. 그리고 유신 시절과의 차이점은 어떠한지. 노조를 폐쇄시킬 정도니까 탄압의 정도가 더 심했던 걸로.

또 보안사에 연행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심문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때 상황과 심문을 당하면서의 심경, 아까 누가 옛날 거는 생각하지 말자 그랬는데, 생각을 하기도 싫은 당시 일들에 대해 어렵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신순애 아까 5·18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일단 사람을 죽이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죽였다는 게. 이미 광주로는 갈 수 없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박미옥이라는 평화모임의 교사가 있었어요. 평화모임은 제일교회인가? 창신동 옆에 있는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나는 동화모임 담당이었고 박재익은 평

화모임 담당이었는데. 박재익이 박미옥이라는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광주사태에 대한 것이어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설마? 설마? 이렇게 얘기하고만 말았는데. 이건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글을 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회자 선동하는 글이다?

신순애 박재익은 그걸 자기가 사무실에서 쓸 수 없어서 집에서 깨알처럼 써서 계속 사람들한테 몰래몰래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합수에 가서 가택 수사를 하는데 그 집에 그 원부가 하나 남은 거예요.

사회자 아, 박재익이 썼던.

신순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합수부에 가서 보름인가 열흘인가 있다 나왔는데. 박재익은 거의 한 달 정도 있다 나왔는데,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거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거기 가서 우리 여자들은, 저는 독방에 놔뒀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같이 놔뒀대. 두드려 맞은 사람도 같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구 하나를 때리면 거의 반은 죽여가지고. 담요가 한 사람 앞에 2개씩인데 맞은 사람이 막 사지 떨듯이 덜덜 떨어서 각자 담요 하나를 이 사람한테 덮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박재익은 그 유인물 때문에 고문실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사회자 거의 죽다 살아났구나.

신순애 그러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이, 고문실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딱 예수님(웃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사회자 칠성판에 눕혀놓고?

신순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그런 게 있었구나. 내가 깜짝 놀란 것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연대가 꽤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재 근데 해산될 때, 사무실이 강제 폐쇄가 된 다음에.

신순애 그 전에 합수에 끌려갔잖아요

임현재 아니, 그러니까 합수에 갔다 와서 해산 명령서를 받았고. 해산명령서를 받고 나서 우왕좌왕 며칠을 보내는 과정에 연합노조 회의에 참석하고. 그때 나는 사실 어떤 회유를 하나 받았어요. 노동청 노준석 국장이 임현재 한번 보자, 그래서 갔더니 네가 이럴 때 지지선언을 제스처로 하나 써라.

사회자 지지선언?

임현재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소나기는 피해 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럴 때 좀 지혜롭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군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노준석

이 어떤 위치였냐면 관계기관대책회의(5, 6공화국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당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처리 방안을 결정하던 준 상설 기구. _편집자 주)의 멤버였어. 그러니까 노동 쪽 멤버지,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노조를 살린다는 각오로 어떤 용기가 필요했던 결단이었지만, 나한테 그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더 고민을 안고 처진 어깨를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강제로 사무실이 폐쇄돼버리니까 아,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방법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럼 주전과 화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제 노조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었는데.

그럴 때 민종덕을 중심으로 한 젊은 조합원들, 중견 조합원들이 농성투쟁을 해야 된다, 어디서든지.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 검토한 게 아프리였어요. 노조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금방 끌려가 버리는데 거기는 외국 기관 사무실이기 때문에 함부로 침입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아마 그 시기에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농성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고 용기가 부족했지. 그때 그 친구들이 저 형님들한테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으니, 형님들은 모르는 걸로 하고 우리끼리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아프리 투쟁을 강행한 거였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 난 그 정보를 알았어. 언제쯤에 간다는 정확한 시간은 몰랐지만. 투쟁을 개시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전화를 받고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나는 아프리로 갔어요. 죽어도 조합원들하고 같이 죽어야지, 생각하고 갔더니 또 거기 이승철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연행이 됐고.

사회자 다 잡혀간 거지, 그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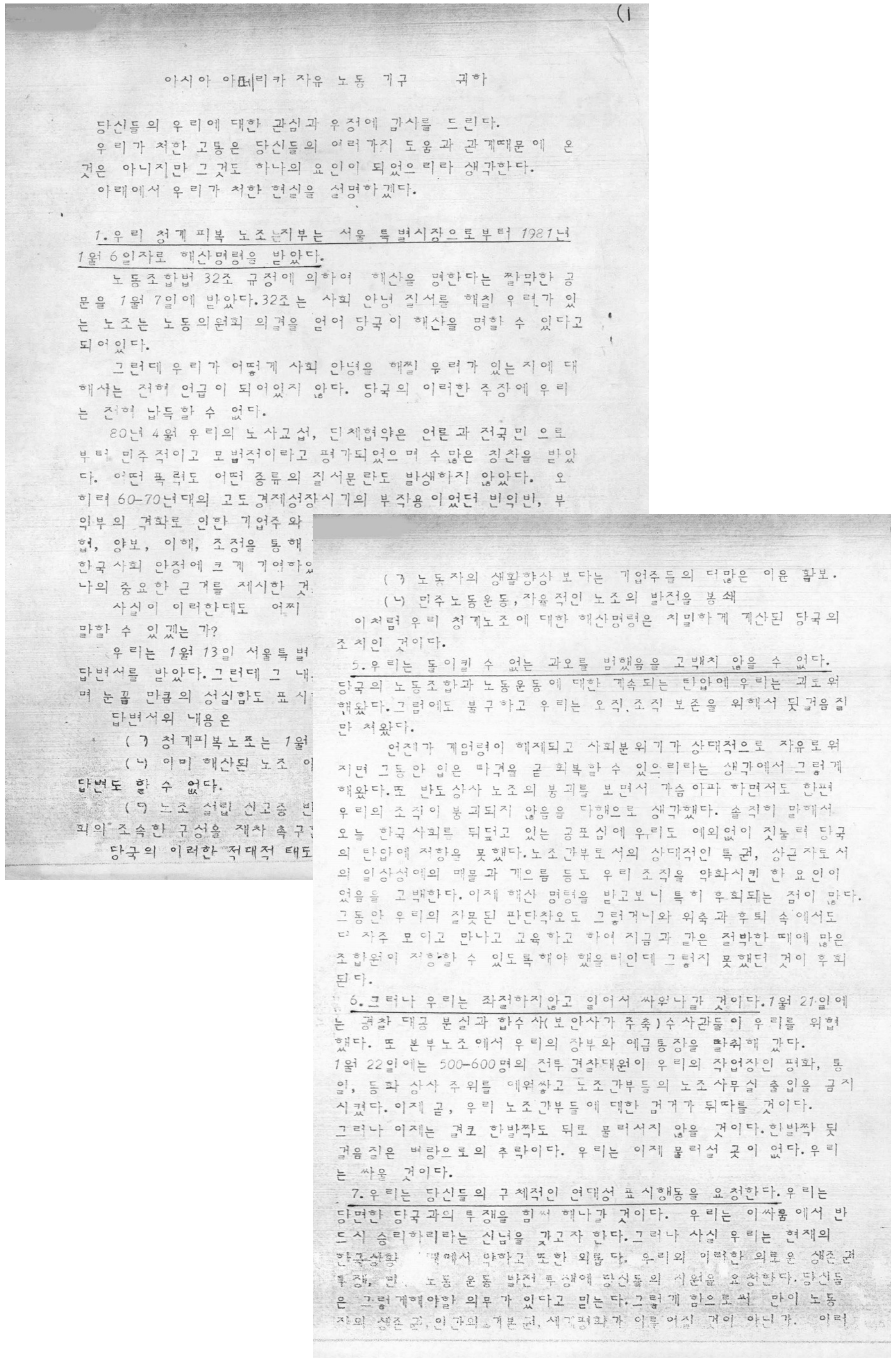
임현재 먼저 연행이 되어 갔죠. 거기 농성하는 조합원들보다도. 끌려가서 배후 조종해놓고 이 새끼들이 거짓말한다고 두들겨 맞고.

사회자 배후 조종자로 몰렸겠네요. 이 얘기를 더 하기 전에 나성자 총무님이 사무실을 항상 지키고 있었잖아요. 당시 중앙정보부나 또 중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 백 형사, 이런 사람들, 마 형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죠?

나성자 네, 거의 상주하다시피.

사회자 상주하다시피 했죠. 그러면 그때 조합원들이나 지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장으로 나가고 나성자 총무님 거의 혼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보를 캐내려고도 하고. 조합원들이 아니면 노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느낀 분위기는 어땠어요?

나성자 그 형사, 담당 형사 두 분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졌다,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로 아주 극비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정도는 얘기하겠지 싶어서 농담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네가 또 이건 좀 공개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살짝 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제가 사실 아는 것도 없었지만,(웃음) 알고 있는 사실을 노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 노동 기구　귀하

당신들의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정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처한 고통은 당신들의 여러가지 도움과 관계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겠다.

1. 우리 청계 피복 노조는지부는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1981년 1월 6일자로 해산명령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32조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한다는 짤막한 공문을 1월 7일에 받았다. 32조는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노조는 노동의원회 의결을 얻어 당국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당국의 이러한 주장에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80년 4월 우리의 노사교섭, 단체협약은 언론과 전국민으로부터 민주적이고 모범적이라고 평가되었으며 수많은 칭찬을 받았다. 어떤 폭력도 어떤 종류의 질서문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시기의 부작용이었던 빈익빈, 부
익부의 격화로 인한 기업주와
협, 양보, 이해, 조정을 통해
한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
나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 것
사실이 이러한데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1월 13일 서울특별
답변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 내
며 눈곱 만큼의 성실함도 표시
답변서의 내용은
(ㄱ) 청계피복노조는 1월
(ㄴ) 이미 해산된 노조 이
답변도 할 수 없다.
(ㄷ) 노조 설립 신고증 반
회의 조속한 구성을 재차 촉구
당국의 이러한 적대적 태도

(ㄱ) 노동자의 생활향상 보다는 기업주들의 더많은 이윤 확보.

(ㄴ) 민주노동운동, 자율적인 노조의 발전을 봉쇄

이처럼 우리 청계노조에 대한 해산명령은 치밀하게 계산된 당국의 조치인 것이다.

5.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했음을 고백치 않을 수 없다.

당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계속되는 탄압에 우리는 괴로워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조직 보존을 위해서 뒷걸음질만 쳐왔다.

언젠가 계엄령이 해제되고 사회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 그동안 입은 타격을 곧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왔다. 또 반도상사 노조의 붕괴를 보면서 가슴 아파 하면서도 한편 우리의 조직이 붕괴되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공포심에 우리도 예외없이 짓눌려 당국의 탄압에 저항을 못했다. 노조간부로서의 상대적인 특권, 상근자로서의 일상성에의 매몰과 게으름 등도 우리 조직을 약화시킨 한 요인이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해산 명령을 받고보니 특히 후회되는 점이 많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판단착오도 그렇거니와 위축과 후퇴 속에서도 더 자주 모이고 만나고 교육하고 하여 지금과 같은 절박한 때에 많은 조합원이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을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

6.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않고 일어서 싸워나갈 것이다. 1월 21일에는 경찰 대공 분실과 합수사(보안사가 주축) 수사관들이 우리를 위협했다. 또 본부노조에서 우리의 장부와 예금통장을 탈취해 갔다.

1월 22일에는 500-600명의 전투경찰대원이 우리의 작업장인 평화, 통일, 동화 상사 주위를 에워싸고 노조간부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제 곧, 우리 노조간부들에 대한 검거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결코 한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한발짝 뒷걸음질은 벼랑으로의 추락이다. 우리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7. 우리는 당신들의 구체적인 연대성 표시행동을 요청한다. 우리는 당면한 당국과의 투쟁을 힘써 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신념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현재의 한국상황 [illegible]에서 약하고 또한 외롭다. 우리의 이러한 외로운 생존권 투쟁, 민 [illegible] 노동 운동 발전 투쟁에 당신들의 지원을 요청한다. 당신들은 그렇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노동자의 생존권, 인간의 기본권,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러

청계피복노조의 강제해산과 관련하여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에 보내는 글, 전태일재단, 1981.

사회자　그래도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기밀을.

나성자　어떻게든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도 질문을 해보고 저렇게도 질문을 해보지만, 저도 지부장님 이하 여러 우리 부장님들한테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사회자　훈련이 되어서.(웃음) 그럴 때 심정은 좀 어땠어요? 혹시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성자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 5년을, 사무실 폐쇄되기까지 했고. 그 후로도 언니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그랬으니 그런 거는 없었고. 뭔지 모르지만 이건 옳은 일이야, 이분들은 다 옳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옳은 일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힘들었다, 후회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임현재　노조 간부들이 성격들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회의하다가도 우당탕 재떨이가 날아가 버리고.

나성자　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임현재　또 사장들이 체불 임금 해결하러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또 날아다니고. 그러면 책상이 싹 엎어져버리고. 난장판이 됐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복원시켜 다 정리해놓고. 참 고생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나성자 동지는 그걸 다 참고 내색 없이. 그래서 역대 지부장들이 다 나성자 동지

를 굉장히 사랑했어.(웃음)

나성자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넘치게 사랑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임현재 사실은 집행부 교체가 다 조직 분규의 성격을 띠고 있었거든. 이승철로 교체될 때도 그렇고 양승조로 교체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양승조를 하야시킬 때는 더 심했고. 노골적으로 그런 적들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부장들한테 사랑을. 나는 사실 지부장이 나성자였어.(웃음) 지출결의서나 이런 건 내가 한 번 도장 찍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

나성자 정말 믿고 맡기신. 제가 노조에 근무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간에 목적은 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간부들끼리도 그렇고 조합원과 간부들끼리도 그렇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가 많았지요.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일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한 적도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나도 있는데 좀 더 참고 견뎌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때 저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고 사무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자 혼자 알아서 다 잘하고. 참 5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지부장을 모시면서 정말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딱 10년 만에 해산된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해산되었는데 총무님이 두 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김수정 언니하고 우리 나성자. 그런 거 보면 청계노조가 총무님에 대한 신뢰도들이 서로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많이 교체하지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같이. 투쟁도 같이하고 끝까지 서로 지키고 한 부분들. 우리 나성자 총무님이 청계노조의 숨은 공로자네요.

나성자 그렇진 않죠.(웃음) 그때 누구나 다 그러셨거든요.

임현재 기둥이었어.

신순애 보이지 않는 손.

임현재 내근 쪽은 아주 꽉 잡고 있는.

사회자 또 이소선 어머니가 가장 믿고 있는.(웃음)

임현재 그러니까 골고루 신뢰를 받았으니까.

나성자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때 다들 고생하셨어요.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고. 지부장님은 지부장님대로 다들 각자 위치에서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청계노조와의 인연이, 청계노조를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혹시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도 후회 없이 너무나 잘했다. 왜냐하면 순애 언니 같은 경우 부녀부장이었잖아요. 퇴근하고 조합원들을 결집시키려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또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장 봐서 김밥 싸고. 반찬은 오로지 배추김치. 포기김치도 아니고 잘라서. 그러면 언니 도와서 저도 창신동 그 방에 가서 같이 김밥도 싸고 김치도 담고. 이렇게 다들 각자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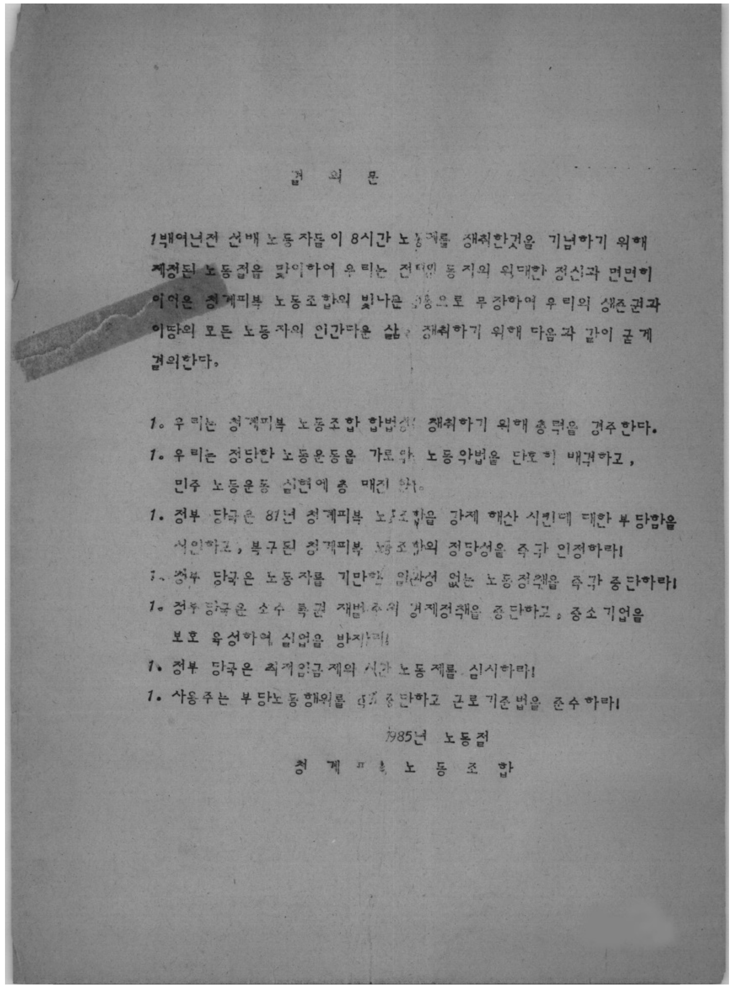
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히 내가 나 이거 힘들어, 이런 생각 할 수 없었어요.

신순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웃겼던 게, 행여나 그 동대문, 창신동 공부방을 지부장이 알까 봐, 알면 못 하게 할까 봐.(웃음)

4. 합법성 쟁취 투쟁

사회자 나도 엄마 면회 갔다가 항상 노조 사무실 가서 미스 나한테 갔다 온 얘기 하고. 하여튼 갔다 오면 맨날 사무실에 가서 보고하고 얘기하는 게 일이었어요.(웃음)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러하면서 노조가 해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합법화 투쟁이 있었죠. 아프리 투쟁의 결과로 노조의 주요 인사들이 구속이 되고 수배가 되었어요. 도피 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 청계노조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소강상태에 들어간 거죠.

선배님들이 감옥에서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사이에 노조의 복원을 위해 젊은 여성 조합원들 중심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청계노조의 역사를 잇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계획하게 되었고. 청계 모임 결성, 법외노조의 형식으로 청계노조를 복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대학생들과 노학연대를 통해서 합법성 쟁취 투쟁 및 구로동맹파업(1985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구로 지역의 민주노조들이 노조운동 탄압에 맞서 벌인 동맹파업과 지지 연대 투쟁. _편집자 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서노련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여러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쨌든 합법화 투쟁을 계기로 청계노조는 결국 합법화를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노조의 역사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됐죠.


결 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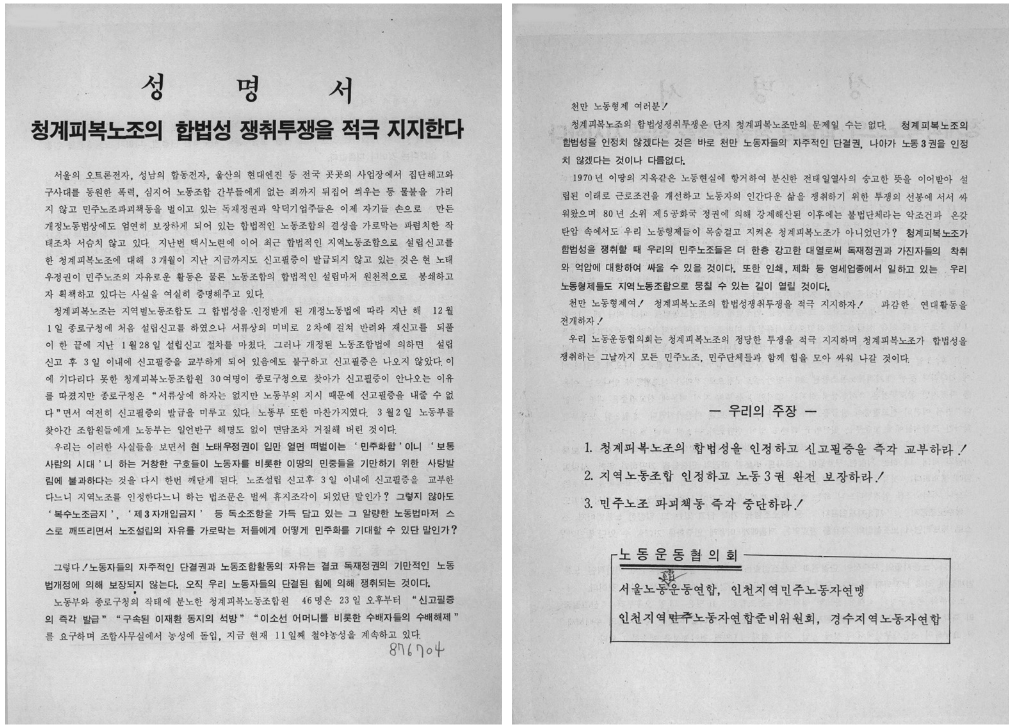
1백여년전 선배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전태일 동지의 위대한 정신과 면면히 이어온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빛나는 투쟁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생존권과 이땅의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1. 우리는 청계피복 노동조합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정당한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노동악법을 단호히 배격하고, 민주 노동운동 실현에 총 매진 한다.
1. 정부 당국은 81년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 시킨데 대한 부당함을 시인하고, 복구된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즉각 인정하라!
1. 정부 당국은 노동자를 기만한 일관성 없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 당국은 소수 특권 재벌 [illegible]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 실업을 방지하라!
1.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제와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1. 사용주는 부당노동행위를 [illegible]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85년 노동절

청 계 피 복 노 동 조 합

노동절 맞이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 결의문, 전태일재단, 1985.



성 명 서

청계피복노조의 합법성 쟁취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서울의 오트론전자, 성남의 합동전자, 울산의 현대엔진 등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집단해고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 심지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는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파괴책동을 벌이고 있는 독재정권과 악덕기업주들은 이제 자기들 손으로 만든 개정노동법상에도 엄연히 보장하게 되어 있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파렴치한 작태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번 택시노련에 이어 최근 합법적인 지역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청계피복노조에 대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노태우정권이 민주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은 물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설립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청계피복노조는 지역별노동조합도 그 합법성을 인정받게 된 개정노동법에 따라 지난 해 12월 1일 종로구청에 처음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서류상의 미비로 2차에 걸쳐 반려와 재신고를 되풀이 한 끝에 지난 1월28일 설립신고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설립신고 후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필증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기다리다 못한 청계피복노동조합원 30여명이 종로구청으로 찾아가 신고필증이 안나오는 이유를 따졌지만 종로구청은 "서류상에 하자는 없지만 노동부의 지시 때문에 신고필증을 내줄 수 없다"면서 여전히 신고필증의 발급을 미루고 있다. 노동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3월2일 노동부를 찾아간 조합원들에게 노동부는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면담조차 거절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현 노태우정권이 입만 열면 떠벌이는 '민주화합'이니 '보통사람의 시대'니 하는 거창한 구호들이 노동자를 비롯한 이땅의 민중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노조설립 신고후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느니 지역노조를 인정한다느니 하는 법조문은 벌써 휴지조각이 되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등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는 그 알량한 노동법마저 스스로 깨뜨리면서 노조설립의 자유를 가로막는 저들에게 어떻게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는 결코 독재정권의 기만적인 노동법개정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의해 쟁취되는 것이다.

노동부와 종로구청의 작태에 분노한 청계피복노동조합원 46명은 23일 오후부터 **"신고필증의 즉각 발급" "구속된 이재환 동지의 석방"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한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합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 지금 현재 11일째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876704

천만 노동형제 여러분!

청계피복노조의 합법성쟁취투쟁은 단지 청계피복노조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청계피복노조의 합법성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바로 천만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나아가 노동3권을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1970년 이땅의 지옥같은 노동현실에 항거하여 분신한 전태일열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이래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싸워왔으며 80년 소위 제5공화국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된 이후에는 불법단체라는 악조건과 온갖 탄압 속에서도 우리 노동형제들이 목숨걸고 지켜온 청계피복노조가 아니었던가? **청계피복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할 때 우리의 민주노조들은 더 한층 강고한 대열로써 독재정권과 가진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쇄, 제화 등 영세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형제들도 지역노동조합으로 뭉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천만 노동형제여! 청계피복노조의 합법성쟁취투쟁을 적극 지지하자! 과감한 연대활동을 전개하자!

우리 노동운동협의회는 청계피복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청계피복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모든 민주노조, 민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청계피복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2. 지역노동조합 인정하고 노동3권 완전 보장하라!
3. 민주노조 파괴책동 즉각 중단하라!

노동운동협의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합준비위원회, 경수지역노동자연합

노동운동협의회의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투쟁 지지 성명서, 전태일재단, 1988.

당시 신순애 씨나 우리 임현재 지부장님, 나성자 총무님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했죠. 그래도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듣고 있었는지, 또 후배들이 노조 합법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당시 청계노조 해산 이후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어떻게 변했는지, 80년 투쟁으로 변화시킨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 같은 것들이 잘 해결되었는지. 노조가 없어졌으니까 노동 조건이 후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지.

또 후배 세대들의 운동 과정에 대해,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나는 이렇게 들었고 어떻게 생각했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재 저는 그때 구속돼서. 최종 판결은 2심에서 10월 만기 출소 형식이었지만.

사회자 몇 년 있다 나오셨어요?

임현재 1년 딱 있었죠.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때 사실 아이들, 윤선이가 돌이었어요. 윤정이가 5살.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한다고 해야 할까? 우리 집사람이 딸들을 데리고 면회를 오면서 그 고생들을 다 했잖아요, 가족들이 다. 거기에는 또 가족이 없이 구속된 동지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밖에서는 바깥 나름대로 엄청 고생들을 했고. 우리는 또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와서.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법외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내가 노동운동을 더 계속하기는 어렵다,

동력을 너무 많이 상실했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사실 직업도 없고 기술도 없잖아요.

10년 동안 노동운동 했으니까. 재단사, 재단보조 하다가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기술도 없어서 먹고사는 데 어려웠고. 그래서 그쪽에 집중했죠. 이제 우리는 전태일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추도식도 진행하고, 전태일 정신은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유지하고 계승하자. 그것은 상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서 그렇게 참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로 청계노조가 복구되기까지 가졌던 투쟁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운동에 후배들이 기여한 바는 엄청나게 컸죠. 나도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 당시에 열심히 하던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는 하고 있습니까?

임현재 우리는 청우회. 청우회로 1년에 2번씩 모이게 되잖아요. 여름에 한 번 모이고 겨울에 우리 노조 창립기념일 중심으로. 그 언저리에 송년 모임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그래도 꼭 전달했어요. 활동 장려금, 이런 식으로.

사회자 활동 장려금.

임현재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신순애 청우회 회비 일부를 매년.

임현재 그렇게 해서 후배들을 도왔고. 그래서 서로 연대의식을 갖도록 했던 기억이죠.

사회자 그리고 저기 우리 신순애 씨.

신순애 저는 사실 당시 합법화 투쟁을 한 우리 후배들한테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함께하지 못한 거. 그런데 그때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전 몰랐어요. 예를 들면 김영삼이니 김대중이니 뭐 감금됐다는 얘기는 방송에 나오는데, 서노련 출범식이라든지 어쨌든 청계에서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거는 안 나와서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형사들이 와서 저를 밖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애기를 안고 나가야 하는 것도 있고, 사실 형사들이 안 왔어도 나가기가 어려운 편인데.

사회자 감시 상태에 있었네요.

신순애 형사들이 오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사회자 형사들이 계속 집 주위에서 지키고 있어요?

신순애 한 번은 쌀 8kg를 사서 저한테 왔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사실 8kg면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건데. 그때 이선희라는 친구가 내가 어렵게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쌀을 8kg짜리 하나 사 주고 가더라고요. 진짜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형사들이 8kg를 갖고 왔을 땐 너무 속상해서 제가 길거리에다 뿌려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뿌린 건 잘한 것 같아요. 쌀은 아까웠지만.

그래서 후배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때 또 저한테 뭐 회유,

협박을. 새마을 지도자 그거 하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북한 얘기 하고 새마을 지도자.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노조에서 말 잘하고 마이크 몇 번 잡은 거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 최소한 정부 앞잡이는 하지 말자, 그래서 거절했는데. 내가 안 받아주니까 우리 집주인한테 압력이 온 거예요. 계속 세를 사니까 압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소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한테 압력이 들어와서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쌍문동 208번지로 주소를 옮기라고. 아마 최초로 위장 전입은 제가.(웃음) 쌍문동에서 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전태일기념관에다가 주민 등록 초본을 기증했어요. 여튼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억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조 활동할 때는 우리가 노동자로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멋있고 훌륭한 일인데. 이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 나만의 고민. 심지어 어떤 친구는 나한테 야, 네가 그런 일도 당했어? 그런데 세를 안 사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고요. 저처럼 남의 집에 세 사는 사람들은 무한히 협박을. 그래서 서재덕 같은 친구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 친구도 그런 케이스니까.

사회자 그러면 회유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신순애 2년 동안에 이사를 18번 갔다니까요.

사회자 아, 세상에. 그러면서 서노련에 참여는 안 했는데 서노련이 출범하는 것도 그 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신순애 그럼요.

사회자 그래서 서노련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신순애 그때 황만호, 김준용 그런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소식은 듣고 있었죠. 이 친구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내 기억으로는 어느 날 황만호 만나서 내가 3만 원을 조용히 주머니에다 넣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사회자 그러니까 그 이후로 후배들이 합법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임현재 선배님도 그렇고 신순애 씨도 그렇고 모두가 정부로부터 알게 모르게 감시를 받으면서 또 회유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후배들이 투쟁을 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합법화됐다는 얘기를 들은 건가요?

신순애 그럼요. 선배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에서 지원해서 전태일기념사업회가 창신동에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 후는 자주는 아니지만 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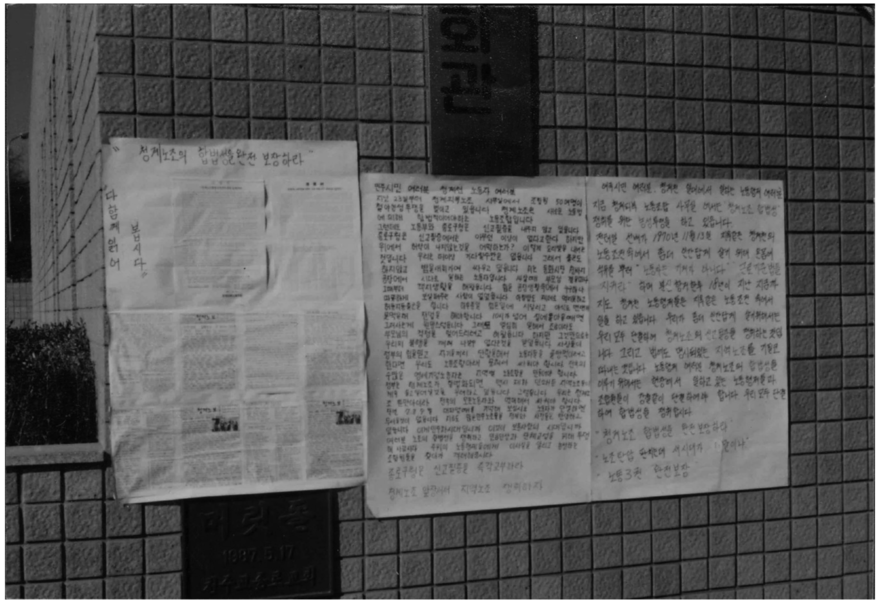
사회자 그렇게 들으면서 좀 어땠어요?

신순애 선배로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사회자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았어요.

임현재 합법화라는 노조 간판은 걸었을지라도, 그동안 동화시장, 평화시장, 통일상가라는 상가 안에 있던 공장들이 감독을 피해서 굉장히 많이 밖으로 이사를 간 상황이었고. 그런 데다가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굉

장히 어렵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공장들이니까. 그래서 합법화 이후의 조직 형태는 1기 노동조합이라고 할까? 기존에 우리가 했을 때와는 양상이 다르게 나오죠. 그때는 한 30, 40명 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조직이 진행이 됐고. 우리는 또 조합 일선의 간부이거나 현장에 종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참여가 없다시피 했고. 단, 1년에 1~2번 우리 조합 간부들 청우회 모임할 때.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요구 대자보, 전태일기념관, 1988.

위 :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에서 합법성 쟁취투쟁 농성, 전태일기념관, 1988.

아래 :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공개토론회, 전태일기념관, 1984.

사회자 청계 모임.

임현재 불러서 같이 이야기 듣고 격려해주고.

사회자 물질적인 후원도 할 수 있는 대로 해 주고.

임현재 많지는 않지만.

사회자 오늘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청춘을 청계노조와 함께 시작하고 거기에 바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임현재 그렇죠.

5. 결어

사회자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과정에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오셨고요. 다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건 주변의 동지들과 다른 노동자들, 또 대학생들, 지식인들 등과의 연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연대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노동 조건이 물리적으로 개선은 되었지만 연대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많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사회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 갈등, 젠더 문제, 지역 간의 혐오로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혐오를 극복하고, 노동자와 노동자, 시민들이 예전처럼 우리는 노동자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그리워집니다. 아까 나성자 총무님이 얘기를 했지만 나도 여기에 중요한 한 파트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싸워야 하는 동지니까 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 또 우리 노조뿐 아니라 외부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상당히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당시 노동 환경과 현재 노동 환경의 차이,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후퇴가 됐는지. 또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당시 노동자, 대학생, 종교인, 지식인, 시민 들이 연대할 수 있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때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방안은 뭐가 있는지. 또 우리 후배들, 지금도 젊은 노동자들 많잖아요. 비정규직이고 알바인 이런 청년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전보다 더 어렵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나눔과 연대에 기반한 전태일, 이소선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재 얘기가 워낙 광범위해서.

사회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라서 좀 광범위해요.(웃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사회가 갈라져서 서로 갈등상태에 있는데 이를 이소선, 전태일, 그 나눔의 정신으로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임현재 우선 나이가 한 70을 넘고 하니까.

사회자 그렇게 나이가 많으세요?

임현재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참 부끄러운 점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기대치라든지.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친구로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떠벌리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 정작 용기를 내야 할 시기에 숨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떳떳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후에 전태일 영화 만들 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를 만들고 그걸 개봉했을 때 거기 모였던 과거 동일방직,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타, 소위 70년대 민주 노동운동 조직에 참가했던 동지들을 보면서, 이야, 우리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거든요. 지금까지 그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술도 하고, 또 후배 동지들하고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반성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연대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우리 노동운동의 환경을 보면, 법으로 만들어놓았는데도 그것을 뒤집어엎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속에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걸 쪼개기로 해서 몇 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때만 적용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켜버리는 나쁜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산업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같아. 이를테면 지난번에 법을 만들었잖아요. 검수완박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수사권 조정을 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번에는 재네들이 국회의원 수가 적으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서 또 그걸 뒤집어엎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심하게 반대만 하니까 어떤 대안이나 타협점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는 데서 오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계엄령, 위수령으로 통치하던 시절과 같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도 사회의 어른들이 방향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조정을 하는 기능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될 분들, 청춘을 다 바쳐서 열심히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냥 노선 자체를 바꿔버림으로 해서 지지나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사회적 자산이 너무 없지 않은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태일기념관, 전태일재단을 중심으로 전태일 정신이 더 필요한 시기가 자꾸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자 신순애 동지는 그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순애 개인적으로 내 지론이 첫째 건강하게, 둘째 후회 없이, 셋째 실천하면서 살자, 이게 지론인데.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청계노조에서 배운 지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양대 노총,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 속에서도 뭐예요, 또 화물연대나 이런 데는 더 쪼개놓고. 심지어 지난번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간호사들이 3교대잖아요. 그럼 그냥 3교대로 끝나야 하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무엇으로 쪼개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한 수단 같아서 제가 그 간호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간호사님 제가 보기에 일일 4교대 돼야 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맞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위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쨌든 저는 내가 내 위치에서 뭐를 할 건지 늘 고민하면서 살고. 이번에 수해로 지하실에 물난리 나기 이전에 내가 국토부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하나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대안은 없었어요. 무슨 내용을 제기했냐면, 지하실 방은 인간의 조건으로 살 수 없는 곳이다. 우리 사회가 공적 자금을 교육에 투자하고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여태껏 기업들한테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곳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지하실 방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지하에 산다면 이런 세대를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안했는데 청와대에서 회신이 왔어요. 이건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할 일이라고. 이번에 물난리 나는 거 보고 정책하는 사람들, 참. 그러니까 이건 지하실 방에 살아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거든요. 지하실 방에 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몰라요. 그런데 행정부에 지하실 방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어쨌든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옛말에 바위도 물이 뚫는다는 식으로. 보잘것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는 뭐를 할까 늘 고민하면서. 올해 물난리 나는 거 보고 내 제안을 반영했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안 됐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튼. 끊임없이 저는 그런 걸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있지 않는 한.

임현재 훌륭하십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나성자 우리가 40~50여 년 전,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참 중요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잘못은 아닌데, 사회적으로 '나'가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연대하기가 옛날만큼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그쪽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좌우지간 여러 사회적인 환경들이 아이들을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었고. 또 지금은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금수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도 어쩌면 옛날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렵지만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 임현재 지부장님이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선배들과 지도자들이 있어서 어려울 때는 우리들이 함께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선배들이 자기들의 노선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선배가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뼈아픈 지적인 것 같고요.또 그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간호사들이 4교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교대, 3교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노동 조건 아래 있고. 그전하고 지금하고 상황 자체는 다를지라도 처해 있는 환경은 참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우리보다는 나를 우선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성자 제가 여러 지부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함께했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는 참 외롭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닥치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지도자가 느끼는 것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참 좋겠다.

임현재 감사합니다.(웃음)

사회자 임현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태일 정신과 그때 부르짖었던 것들이 우리에겐 아직도 더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재 나성자 전순옥 신순애

번외 청계노조 연대 투쟁의 기록 신광용 인터뷰

인터뷰 5회차

2022년 8월 1일 월요일 16:00

왼쪽부터 전순옥, 신광용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죽으면 갯값이야. 기업은 일단 안 주려고 그러고 유가족은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그냥 정리하게 되는. 노동자는 지금도 개, 돼지지만 그때는 더 개, 돼지였어. 그런 걸 보고, 열여덟의 울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열여덟이면 무서울 게 하나 없는 나이고. 의협심이 강하고 이런 나이 때니까. 내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뭘 한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간 거지.”

사회자 신광용은 이름만 들어도 참 새롭고. 정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창동 집에 참 많이 왔었는데, 창동 집에 와서 자리가 없어서 장롱 안에서 잔 기억나? 이불 다 꺼내고 나면 사람들이 주르륵 누워 자니까.

신광용 오래됐어.

사회자 나는 그럼 여기서 혼자 자야지, 그래서 이불 다 꺼낸 장롱 안에 혼자 들어가서 자던 모습,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창동 집을 왜 그렇게 자주 왔어요?

신광용 일단 조합원들 쪽으로 해서 함께 갔어요. 모임 끝나면 그 쪽 가서 또 밤새 얘기하고 다음 날 또 움직이고.

사회자 나는 신광용, 하면 첫인상이 장롱 속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 그게 기억나고. 두 번째는 라면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신광용 그때는 다 잘 먹을 때야. 내 친구들도.

사회자 뭐든지 잘 먹을 때라고?

신광용 그때는 한 보통 5~6개씩 기본으로 먹었어.

사회자 그런데 그날 내가 10개 끓여줬는데. 10개 먹었는데.

신광용 아니야, 그 정도는 안 먹었을 것 같아.(웃음)

사회자 아니, 이만한 냄비에다 물도 많이 안 넣고 10개를. 왜 그러냐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한 게, 오늘 신광용에게 라면을 실컷 먹이자. 진짜 옆도 안 쳐다보고 라면을 혼자 먹더라고. 그래서 그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아 있고. 그다음 9·9 사건(1977년 9월 9일 청계노조가 당시 이소선 어머니를 구속하고 노동교실을 폐쇄한 국가 폭력에 맞서 펼친 투쟁. _편집자 주) 때 올라가서 할복을 하겠다고. 그때 유리로 그랬나?

신광용 병일 거야.

사회자 병 깨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신광용이 여러 투쟁에 참석을 했죠.

신광용 어쩌다가.

사회자 아니요. 여러 투쟁에 가는 곳마다 신광용이 있었고. 신발 벗어 들고 경찰 때리는 모습도 많이 봤고.(웃음) 그러는 과정 속에서 풍천화섬? 기억나죠? 한양대 앞에 투쟁하러 갔을 때, 그때 신광용이 여성 노동자들하고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나?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신광용 그런데 풍천에서는 양승조 지부장님하고.

사회자 이양현.

신광용 양현이 형은 잘 몰랐고. 그다음 생각나는 게 박문담 형 그때 관련이 좀 있었고. 문담이 형 집을 많이 갔었어요. 가서 노동조합 얘기도 하면서. 그때 성동경찰서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잡혀가고 그랬을 때

니까. 제가 1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쩌다가 노동조합을 알게 됐고 어쩌다가 노동운동을 했고.

사회자 그때 풍천화섬 건으로 성동경찰서에 잡혀서 구류 같은 걸 살았어요?

신광용 그때까지는 구류 같은 거 산 적 없어요. 조사만 받고 이틀 있다가 나오고 그랬지.

사회자 그때가 아마 75년, 76년?

신광용 75년 말 정도인가? 내 기억으로는.

사회자 추석 때쯤.

신광용 그런데 당시만 해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아무튼 청계노조 조합원으로서 이렇게 외부 연대투쟁도 많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참 예쁘게 잘생겼어.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래서 투쟁 나가면 다른 동일방직이나 이런 공장의 누나들이 신광용 되게 좋아했던 거 알죠. 귀여워해주고.

신광용 몰라, 그거는.(웃음)

사회자 언제든지 와서 투쟁을 같이해주니까. 또 열심히 싸워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청계노조에는 몇 년도에 조합원으로?

신광용 제가 73년도에 평화시장에 들어갔고, 74년 말, 75년 정도에 노동조합을 알았는데. 그때가 무슨 국수를 삶아줄 때야. 저기에서.

사회자 점심에.

신광용 네, 점심에.

사회자 점심에 이소선 어머니가 복지센터에 나가서 국수 삶아줄 때.

신광용 그거 먹고. 거기 옥상에 노동교실이 있었는데, 사측에서 안 열어줘가지고 열어달라, 이런 거 할 때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노조에 갔는데. 그것도 어쩌다 이쁘게 생긴 여자가 있어가지고 좇아갔었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알게 된 거고.

사회자 그래서 노동조합에 더 재미가 있었군요.(웃음)

신광용 거기서 노동조합을 알게 됐고. 당시 다른 데에 비해 월급들이 좀 약했어요. 미싱사들은 객공이라 월급이 셌어요. 그런데 미싱 보조나 시다들은 월급이 상당히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얘기하고. 나는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몰랐는데 조합 다니면서 근로기준법도 알고. 8시간, 꿈의 얘기죠. 8시간 일하고 수당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런데 이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노동조합을 다녔었죠.

사회자 그때는 재단사였어요?

신광용 아니요. 재단 보조였어요. 제가 76년도에 재단사가 됐는데 어린 나이에 재단사가 됐어요. 내가 14살에 들어갔으니까. 4년 정도 있다가 재단사가 됐는데. 재단사라 해봤자 기본 패턴 주고, 이런 것들만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별로 일을 안 하고. 제가 밖에 브랜드 쪽 공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났죠.

사회자 그래서 시간이 있었구나.

신광용 시간이 좀 나서, 일 끝나면 노동조합 와서 보고. 거기 브랜드 공장은 일요일엔 또 쉬고.

사회자 그럼 노동교실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했겠네요?

신광용 노동교실은 모임의 장소였다고 보면 돼요. 노동교실은 따로따로. 전문과정 배우는 코스도 있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모임들, 남자애들 모임을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노동교실에서는.

사회자 청계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외부에 나가서 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신광용 중견 조합원들이라고 그러죠. 당시 약간 의식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여름에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놀아요. 잘리기도 하고. 그럼 이제 각 사업장마다 많이 돌아다녔죠.

사회자 연대투쟁 같은.

신광용 네, 당시에는 연대투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좇아가서.

사회자 사업장이 싸우고 있으니까 도움을 좀.

신광용 밖에 가서 구경하고. 동일방직이나 원풍 같은 데 찾아 돌아다니면서.

사회자 청계노조 조합원으로 원풍이나 동일방직 같은 여성 사업장 중심으로 투쟁하는 곳에 본인이 가서 참여하며 활동하고 느낀 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받은 불이익, 예를 들어 구속이 됐는지 아니면 유치장에 갔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신광용 75년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경찰서 가는 거는 몇 번 있었는데, 구류를 살 거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76년부터 탄압이 시작되고 느낌에 강도가 좀 세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3.1구국선언 민주인사들을 구속시키고 폭력을 가해서, 함석헌 선생님 같으면 수염이 빠질 정도로. 백기완 선생님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하셨다니까. 그 이후로는 그 어르신들이 잘 안 오신 거 같았어요. 그 전에는 오셨었거든요, 노동조합에.

사회자 그러면 계기가 언제였죠?

신광용 하여튼 내가 기억하기로는.

사회자 77년도?

신광용 그쯤 돼서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협신피혁 민종진 사건이라고 있어요(1977년 7월 10일 민종진 가스 질식 사건. 협신피혁공업사 폐수처리장 배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민종진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지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중태에 빠졌다. _편집자 주). 그때부터 연대투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유동우 형, 그다음에 박문담, 이런 선배들하고 청계노조하고 연대투쟁하고. 경인지역 쪽하고 우리, 그다음 몇몇 다른 쪽에서 1~2명 참석하고. 그래서 그때 노동청 정보도 파악하고. 잡혀간 사람들 풀어달라고 가서 연대투쟁을 하고. 그때부터 연대투쟁을 시작한 것 같아요.

사회자 협신피혁이 산재잖아요. 산재 노동자가 보상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신광용 그때 당시에는.

사회자 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광용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죽으면 갯값이야. 기업은 일단 안 주려고 그러고 유가족은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그냥 정리하게 되는. 노동자는 지금도 개, 돼지지만 그때는 더 개, 돼지였어. 그런 걸 보고, 열여덟의 울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열여덟이면 무서울 게 하나 없는 나이고. 의협심이 강하고 이런 나이 때니까. 내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뭘 한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간 거지. 내가 무슨 무슨 투쟁 의식이 있고, 또 무슨.

사회자 그래도 청계노조와 또 경인지역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통해서 협신피혁 민종진 산재 사건은 어느 정도 받아낼 거를 받아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신광용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사례였고. 연대를 하면서 뭉치면 뭐든지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때 사회 분위기가 유신헌법, 긴급조치 이런 거 하면서 민주화 분위기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전태일 사건 이후로 노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노동운동도 점차 고무돼가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그냥 어쩌다가 알고 노동운동도 그냥 어쩌다 하고. 그냥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사회자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하더라도, 싸우고 잡혀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신광용 두려움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진짜 가장 해야 할 일이고. 심하게 맞고 나서 겁도 나고 하는 것들은 잠시 있었어도 다시 닥치면 또 하게 되고. 구속되고 했어도 그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그때 싸움 현장에 같이 많이 다니던 김주삼 기억나요?

신광용 네, 친구죠.

사회자 둘이서 단짝 아니었어요?

신광용 그런데 그 친구는 약간 의식이 없었던 조합원. 그 친구는 재단 보조 조직이었었는데.

사회자 하여튼 신광용 씨가 김주삼을 싸움 현장에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녔던 기억이.

신광용 다 참석했어요.(웃음) 내가 데리고 다닌 게 아니고. 그때 모임을 한 7개를 했어요. 남자들 모임을. 재단 보조 모임, 재단사 모임, 강경파 모임 등 한 7개를 만든 것 같아.

사회자 그럼 9·9 사건에 대해서. 9·9 사건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그것 때문에 구속도 됐죠.

신광용 네.

사회자 9·9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신광용 9·9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 구속이었고 또 하나는 노동교실 폐쇄. 이걸 어떻게 문을 열게 할까? 계약 기간은 다 됐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선배들하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회의를 하다가, 전날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뚫고.

사회자 경비를 뚫는 중이었구나.

신광용 나는 첫 번째 가서 뚫는 쪽. 석유통에다가 석유 담아 가서.

사회자 석유까지 담아 갔어요?

신광용 내 몸에 붓고 경찰들한테 붓고. 3명이 있었는데 휘발유 붓고 라이터 드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래서 치고 올라간 거야.

사회자 그래서 올라가게 됐구나.

신광용 그래서 저분들이 그냥 싹 올라간 거야.

사회자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극렬한 투쟁을 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신광용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청계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야. 어머니 구속되고 노동교실 못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모임 장소도 없고. 이전에는 노동조합에서 농성을 하면 우리가 다 이겼어요. 임금 인상 싸움을 했을 때 이겼고, 와이셔츠 단추 농성할 때도 이겼고. 한 3번의 투쟁을 했는데, 우리가 다 이겼다고.

사회자 잠바집 투쟁.

신광용 응, 잠바집 투쟁도 그렇고 다 이겼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길 줄 알았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구속될 줄 몰랐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구속되고 나서.

사회자 노동교실 안에서도 굉장히 결의 있는 투쟁을 했거든요.

신광용 결의라고 하기엔 그렇고.

사회자 창틀에 올라서서.

신광용 그건 투쟁 방법의 하나였으니까.

사회자 그런 투쟁을 상당히 오랫동안 청계에서 함께했고. 또 청계노조가 민주노조로서의 역할로 다른 노동조합들하고 연대하는 데 있어서. 동일방직인가? 원풍모방인가? 동일방직이었죠?

신광용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쫓아당기고 배우는 거지.

사회자 그런 데 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뭔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거기에다 돈을 갖다 주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나요?

신광용 예. 제가 뭘 했었냐면, 콘트롤데이타, 반도상사 같은 곳에서는 옷 같은 걸 상당히 비싸게 사는 것 같았어요. 당시 여성들한테 하얀색 면 커버 양말이 유행했을 때예요. 그런데 평화시장이 의류 생산 업체이고 하니까 제가 시장에서 양말하고 스커트, 기본적인 단품 종류의 옷들을 사서 가져다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금도 만들었고 그걸.

사회자 투쟁 후원금으로.

신광용 콘트롤데이타나 원풍, 그다음에 부평.

사회자 반도상사.

신광용 이런 데 가서 양말도 팔고 그러면서 기금도 마련하고.

사회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광용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게. 자금 만들고, 그런 것들.

사회자 그래서 많은 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신광용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나 봐요.

신광용 잘생겨서.(웃음)

사회자 잘생겨서? 여성 사업장에서도 경찰들한테 하나도 겁먹지 않고 앞에서 싸우고. 그런 거 하면서도 심지어 물건을 팔아서 투쟁 기금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신광용 그게 나는 그냥 생활인데. 난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생활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쩌다 노동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의식이 많이 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쩌다 내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거지.

사회자 의식이 되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이나 생각이 없이는 그런 투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청계노조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었나, 또 노동운동, 외부와의 연대투쟁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내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신광용 제가 중견 조합원 할 때 책을 보고 원산총파업, 규찰대 갈

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토론하면서 약간씩 의식화되고 투쟁 방법을 거기서 알게 되었죠. 남자 조합원들, 보통 평화시장은 여자 조합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 조합원들을 조직해서 울타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거를 하려고 남자 조합원들을 만들어서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만 울타리를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하다 보니 책에서 본 것처럼 연대투쟁도 하고. 당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운동가도 아니고. 뭐 그래요.

사회자 너무 겸손하시네.(웃음)

신광용 그냥 내가 처했던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노동운동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참 잘했다.

사회자 노동운동을 한 게 잘했다는.

신광용 잘했다. 내가 그거 안 했으면 평화시장 사장이 됐을 거다, 거의. 그렇게 돈 벌고 했겠죠. 그러다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그렇게 사는 거고. 그 정도지 뭐. 거창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열심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했고.

사회자 소시민적인 게 가장 큰 겁니다.

신광용 그리고 아프리 사건이 일어나고(1981년 1월 30일, 전두환 신군부가 청계노조를 강제로 해산하자 노조원들이 아시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아프리) 사무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사건. _편집자 주), 저는 징역 3년을 받고 도망을 다녀요. 도망을 다니고. 친구들은 전부 다 감옥 갔고.

사회자 가만있어 보자, 9·9 사건으로도 감옥 갔잖아.

신광용 네, 9·9 사건은 1년 6개월.

사회자 1년 6월하고 나오고. 그다음 80년도.

신광용 81년도에 아프리 사건이 나는 거죠. 아프리는 아시아 아메리카 노동기구 단체인데.

사회자 자유 노동기구 단체.

신광용 예, 그 단체인데 그 장이 아마 조지 커틴인가 그랬을 거예요. 단체는 아니고 그 양반이 미국 간첩이야, 쉽게 얘기해서 간첩이었어. 한국의 노동 문제를 미국에 보고하는 CIA 소속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질로 잡고 농성을 했었죠.

사회자 노동조합을 복구하기 위해서.

신광용 왜냐하면 당시 전두환이 미국 가 있을 땐데, 미국 간 날 그랬으니까. 미국 도착한 날 아프리 사건을 터뜨렸으니까. 그때 엄청 많이 맞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맞았을 거예요. 진짜 심하게 맞았어요.

사회자 나도 서초동 아프리 건물, 그 바깥에 있었거든.

신광용 그러니까 전태삼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다치고. 어린 조합원들도 많이 맞고.

사회자 그때 다친 몸이 지금도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신광용 허리를 좀 다쳤어요.

사회자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리고 징역 가고.

신광용 나는 허리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갑을 양쪽으로 채워놓고 다리까지 채워놨었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만 채워놓더라고. 그렇게 치료받고 있으니까 나는 구속 못 시키고. 병원에 있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죠. 근데, 재판 3년 받고 법정 구속을 안 시키더라고요.

사회자 몸이 아프니까.

신광용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모임을 시작했죠. 조직을 했는데.

사회자 5·3 인천사건(1986년 5월 3일 인천 시민회관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 _편집자 주)에 관련됐었어요?

신광용 좇아만 다녔지. 내가 한 건 없어.

사회자 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또 수배되고.

신광용 그거는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려서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뿐이에요. 뛰는 것뿐이지. 생각이 안 나. 잡히면 맞으니까 일단 막 뛰어다니면서 구호 외칠 생각밖에 안 나고.(웃음)

사회자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그렇게 노동운동을.

신광용 아프리 사건이 나고 다 잡혀갔잖아요. 선배들도 잡혀가고 친구들도 다 잡혀가고. 중견 조합원 있는 게 나, 서재덕 씨, 김선주 씨 세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잡혀가고 이 세 사람 가지고 모임을 했었죠. 당시 아주 중요한 게 형제교회, 제일교회, 경동교회 야학 팀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청계의 역사를 보면 아카시아가 쭉 나오잖아요. 끝까지 아카시아라고 하는데, 나는 아카시아는 저기에서 끝났다고 봐. 76년, 77년에 아카시아는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야학 팀들이 주축이 됐어요.

사회자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는 야학 팀들이 주축을.

신광용 아카시아는 끝나고 야학 팀에서 하던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사회자 크리스챤아카데미 교육받은 사람들,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제교회.

신광용 아카데미 교육받고 와서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사회자 몇 개 받았어요, 그때?

신광용

“나는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몰랐는데 조합 다니면서 근로기준법도 알고. 8시간, 꿈의 얘기죠. 8시간 일하고 수당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런데 이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노동조합을 다녔었죠.”

신광용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거고. 받고 와서 아프리 사건 나고. 이제 조합원들하고 한 7개 팀?

사회자 계속 팀을 만들었어요?

신광용 네, 팀 조직하고 공부시키고 나도 공부하고 했죠. 감사한 분들은 이태복 씨, 몇 출판사 사장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책을 그냥 주셔가지고. 가서 돈 벌면 드릴게요 강제로 달라고 그래가지고.(웃음) 그러고 책 가져와서 애들 나눠주고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미안한 건, 인천 사선(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쪽에 미안한 거. 인천 사선에 150만 원을 빌려서 우리 모임 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재덕 씨, 김선주 씨, 나 이렇게 돈을 부어서 한 120만 원까지는 냈는데, 나머지를 못 냈어.

사회자 아, 빌린 돈을.

신광용 예, 그랬는데. 그걸 탕감을 해주셔가지고.

사회자 거기 신협이 있었나?

신광용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조합이 있었는데, 인천 쪽에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자 인천 쪽에서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이후로는?

신광용 예, 그러고 나서 아프리 사건 친구들이 나왔죠. 나오고 나서 복구대회를 해요.

사회자 84년도.

신광용 예, 복구대회를 하는데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극렬하게

사회자 왜요?

신광용 일단 그때는 노학연대가 주축이었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안 된다, 노동자 쪽에서 몇 명만 가고 나머지는 학생들로 가라, 왜냐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도 없는 상태고 조직을 그대로 살려 끌고 나가려면. 그래서 난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언을 떴죠.

사회자 왜 그걸 반대를 그렇게?

신광용 나는 조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조합은.

사회자 그렇게 조직이 다 손실되면 안 된다.

신광용 예, 그래서 노동조합은 조직이 있어야 싸워보든가 말든가 하지. 청계 역사를 보면 거의 맨 선봉에 서서 싸웁니다.

사회자 그렇죠. 선봉에서 싸우죠.

신광용 싸우다가 감옥 가고. 감옥 간 사람이 나와서 또 하다가 보면 밑에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보면 전태일 친구들, 그 밑에 없어. 그 밑에 민종덕하고 몇몇 사람이 있어요.

사회자 아니 그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밑에 있는 거죠.

신광용 아니죠. 단계와 단계가 있으면, 한 2~3살 차이로 조직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야. 딱딱 잘려서 가고.

사회자 아니 나이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여성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쭉 해온 게, 진짜 청계노조만큼 단결된 노동조합도 없어, 지금까지도.

신광용 내가 얘기하는 거는 노동조합은 일단 조직이 생명인데.

사회자 너무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투쟁은 하면 안 된다.

신광용 투쟁도 투쟁이지만 조직이 있어야 뭘 하죠. 조직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몇몇 사람, 한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은 더불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모든 시민운동은 더불어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더불어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만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거지. 누가 특출나게 앞에 나가서. 난 죽는 거 싫어.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싫어. 살면서 싸우는 게 좋아.

사회자 어머니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살아서, 살아서 싸우자.

신광용 네, 그래서 전민련 뜨면서 저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아니, 서노련. 서노련 뜨면서 청계 쪽은 다 갔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청계 노조 복구대회 하면 또 다 들어가고.

사회자 서노련 반대했군요. 그때.

신광용 나는 반대했어요. 안 된다, 다 잡혀가면 누가 할 것이냐?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 조합주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면 매도를 한 건데.

사회자 경제주의자, 조합주의자.

신광용 근데, 저는 수배도 됐었고. 그리고 조직을 계속 끌고 나가야 하고. 싸움은 싸움 대로 하고 조직은 조직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대도 하지만, 조직이 있어야 뭐 하지. 조직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노련 쪽은 참석을 안 했고. 그런데 서노련 쪽으로 전부 다 갔죠. 서노련 갔다가 얼마 안 돼서 작살이 났잖아요. 조직이 다 와해돼버렸고. 지금도 미안한 게 후배들 잘 챙겨가지고 제대로 못한 게 후배들한테 미안하지.

사회자 여기는 기록을 남기는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

신광용 생활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내 주위에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개선해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후배들한테도, 앞으로 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살면 좀 더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면 너무 강경하다고 그러는데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회자 아니, 나도 강경하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항상 투쟁하는 자리에 신광용이 있었다, 그건 다 기억하는 거죠.

신광용 그거는 내가 당시 필요할 때만 한 거지. 나도 겁도 많고 무서웠어요, 그때.

사회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까?

신광용 네.

사회자 고맙습니다. 투쟁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소시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지금도 내 삶이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신광용 네.

사회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일 정신의 확장과 연대 —2022 전태일노동구술기록 4

2022년 10월 31일 발행

펴낸곳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기획 및 책임편집 유현아

질문 및 정리 김대현

촬영 허철녕

사진 이효영

사진 및 자료제공 양윤미, 강재영

편집대행 걷는사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화 02 318 0903

팩스 02 318 0881

홈페이지 www.taeil.org

전자우편 teail@taeil.org

ISBN 979-11-980330-1-7

ISBN 979-11-970538-2-5 [04330]세트

비매품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은이와 전태일기념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